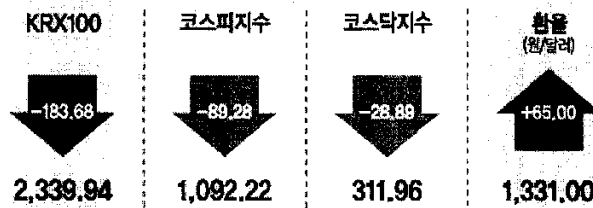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1.07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9475.5	10724.3	1248.8
외국인	12320.5	9505.2	-2815.4
개인	30753.0	32293.8	1540.8
기타	1008.8	1049.1	40.3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293.1	284.4	-8.7
외국인	603.3	297.8	-305.5
개인	9863.6	10116.6	253.1
기타	67.6	128.4	60.8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 포인트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1월물	143.50	-13.75	414,208	110,580
콜155.0	1.26	-4.64	430,850	61,618
풋155.0	13.30	8.35	9,228	39,165

•금리

종류	당일시세(연%)	전일대비
콜	4.21	0.19
CD(91일)	5.92	-0.01
회사채(AA-3년)	8.12	-0.09
국고채(5년)	4.76	-0.10

•환율

단위: 원, 현찰거래, 외환은행

통화	고액결제	고객실매
미국 달러	1303.78	1350.22
일본 100엔	1329.31	1376.65
유럽 유로	1677.38	1745.48
중국 위안	184.58	207.89

현명한 장기투자 문화

❶ 끝나지 않는 위기는 없다

호기심으로 연 상지에서는 채광, 수출, 괴로움, 아픔, 공포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왔다. 20년 공든 탑인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진 증시가 신화 속 판도라의 상자라면 호기심은 금융위기의 전염지인 파생상품 부실과 자산가들의 몰락 같은 것이 빠져나간 판도라의 상자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다. 희망이다. 판도라는 희망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아직 상자를 열 용기가 없어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감춰지고 추상적인 단어에 답할 수 있는 근거도 많다. 정보기술(IT)·조선·자동차 등에서 세계 수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있고 공도를 극대화한 고유가의 환란 우려도 지나갔다. 주식과 펀드를 전부 거는 올인의 대상이 아닌 재산의 한 축으로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똑똑한 펀드 투자 '끈기'에 달렸다

위기 '유효기간' 길어야 16개월 사람도 시장도 상처엔 '시간이 약' 자산 나눠 담는 기회로 삼아야

◇아무리 심한 위기도 16개월이면... =IMF 위기와 IT거품, 대우사태, 카드채 등으로 생채기가 났다. 최근 몇 년간 겨우 쫓아 핀 장기투자문화는 가을 낙엽처럼 빛이 바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적립식펀드'와 미래예세 등의 비상, 이에 합입은 장기투자문화는 재테크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켰다가 현대그룹의 표류로 잠음을 일으키기도 한 '바이코리아펀드' (정식명칭 '푸르덴셜 나폴레옹 정통액티브주식형 1호', 99년 3월 이후 4월 현재 누적 수익률 216%)가 회생을 넘어 재도약을 일궈낸 것도 장기투자의 결실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1인1펀드를 바탕으로 도달한 코스피지수 2000(지난해 11월1일 장중 2085)은 지난날 27일 장중 892까지 하락했다. 최고 100%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는

50~60%의 손실로, 사실상 체감하락률은 4분의1 토막 수준이다.

하지만 희망은 곳곳에 숨어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이한 미국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인 700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 역시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 안정조치를 내놓으며 공포에 나섰다. 국내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로 제2의 환란 우려를 날려버렸다. 후속으로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대책으로 수그러드는 경기를 작극 붙잡고 있고 기업의 막힌 자금줄을 터주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증시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증시 자체의 복원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글로벌 금융사인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한국을 비롯한 인도 미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역사적 움직임을

지역	지수	시점	기간	최악의 6개월 수익률	손실회복에 걸린 시간	2년 수익률 (최악의 6개월 포함)
한국	KOSPI	IMF	97.7-97.12	-0.4852	16개월	18.50%
미국	S&P 500	오일쇼크	74.4-74.9	-0.3239	9개월	9.40%
인도	SENSEX	시장조정	92.10-93.3	-0.3082	9개월	29.90%
글로벌	MSCI AC World	회계부정	02.4-02.9	-0.2635	15개월	6.70%
한국	KOSPI	글로벌금융위기-실물침체	08.5-11	-0.38(기간내 최저 -51%)	?	?
미국	S&P 500	글로벌금융위기-실물침체	08.5-11	-0.32	?	?

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아무리 심각한 시장위기도 16개월이면 극복했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데이비드 프라우드 피델리티운용 대표는 "시장의 복원력은 일반 투자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며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시간의 힘에 의지해 길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방법"이라고 말했다.

◇술림투자를 극복하는 '현명한' 장기투자문화 계기로=증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지금 시점을 술림투자

를 극복하는 자산 재배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증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체원 한국밸류운용 부사장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으로 자산배분이 필요한데 이미 급락한 주식이나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금리는 6%대에 머물고 전세 등 아파트 임대료 수익은 가격 대비 2%대지만 주식은 가격 대비 이익을 따지는 수익률이 10%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차입금으로 펀드

나 주식에 돈을 넣었거나 전재산을 쏟아부은 투자라면 다시 한번 자산 재배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정희석 굿모닝한증권 투자분석부장도 "지칠 만하면 나오는 급등시세, 대박시세에 대한 탐닉, 급등 이후의 지속적인 하락 등에는 의례적으로 술림현상이 있었고 술림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 술림 걱정이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그는 "금전적·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지금까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던 이들은 천천히 투자를 고려해도 좋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폭락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역사를 보면 끝나지 않는 위기는 없다"며 다시 장기투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민 기자 baesm@

머니투데이

수익률 2700% 마젤란펀드 비결은

“펀드투자로 2700%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과연 얼마나 걸릴까.”

최근 펀드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아마도 “가능하긴 한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반문과 질타가 쏟아질지 모른다. 당장 반토막난 눈앞의 펀드성적표를 보면 2700%란 수익률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 상상하기 힘든 수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투자로 27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은 가상이 아닌 엄연한 현실의 일이다. 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13년. 바로 미

국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의 ‘마젤란펀드’의 기록이다. 이 놀라운 수익률을 올린 주인공은 ‘월가의 영웅’ ‘투자자의 전설’ 등으로 불리는 피터 린치다.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펀드’를 운용하면서 2700%라는 전설적인 수익률을 올렸다. 더욱 대단한 것은 13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87년 주가 대폭락 시기에도 피터 린치는 플러스 수익률을 올렸다. 아직도 이 기록은 미국에서 깨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피터 린치가 운용하는 ‘마젤란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이라면 13년 만에 27억원을 번 셈이 된다. 20대 초반 사회에 나와 피터 린치의 ‘마젤란펀드’에 투자했다면 넉넉한 40대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터 린치의 ‘마젤란펀드’

한 것은 ‘장기투자’다. 시황이나 단기 수익에 신경쓰지 않고 투자기업과 펀드매니저를 믿고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한 것이 대박의 비결이다. 피터 린치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겁을 내고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투자를 강조했다.

‘장기 투자=펀드 대박’이란 방정식을 입증한 펀드는 ‘마젤란펀드’만 이 아니다. 일본의 대표적 장수 펀드인 ‘사와카미펀드’도 1999년 설립 이

후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50%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닷컴이지수가 23.24% 하락한 점과 사실상 저금리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률이다. 이 펀드를 만든 사와카미 아스토 사와카미투신 사장은 펀드투자에 성공한 비결을 묻자 “오랜 기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장기투자를 역설했다. 단기수익에 흔들리는 국내 펀드투자자들이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임상연 기자 sylim@

피터린치 운용... 13년 연속 플러스 수익 ‘부화뇌동’ 투자자는 환매해 손해 보기도

투자자 중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들도 있다. 13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생겨났을까. 바로 투자자들의 ‘부화뇌동’ 때문이다.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에 투자했다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자 참지 못하고 환매를 한 것이다.

결국 펀드투자의 성패를 좌지우지

협찬 :  자산운용협회  동양종합금융증권 KB  자산운용

더니투데이

증시 안정 펀드 5150억원 만든다

거래소 등 4곳 출연 - 20일부터 투입

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515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1030억원씩 주식을 사들일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6일 거래소를 비롯해 증권예탁결제원·증권협회·자산운용협회 4개 증권유관기관이 증시 부양을 위한 공동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액은 거래소 2500억원, 예탁결제원 2100억원, 증권협회 500억원, 자산운용협회 500억원이다.

펀드는 상장주식과 국공채를 80대20의 비율로 투자하되 상장주식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80대20의 비중으로 투자한다. 코스피시장엔 3296억원, 코스닥에는 824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펀드는 특정 업종이나 섹터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으로 설정해 3년간 운용한다. 증권유관기관들은 조만간 자산운용사 10곳을 선정해 5150억원씩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증권유관기관은 2003년 신용카드 부실 후유증으로 증시가 침체했을 때도 4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당시 공동펀드는 조성 후 4년6개월 동안 연평균 13.46%, 누적 60.5%의 수익률을 내 증시 안정과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봤다.

증권협회장 장건상 부회장은 "공동펀드가 시장을 움직일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투자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03년엔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 비중을 70대30으로 했으나 그동안 코스피시장 비중이 커져 투입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jkmo0@joongang.co.kr

매일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22면

증권기관 공동펀드 5150억 투입

20일부터 매달 1030억씩 주식 매입

4개 증권유관기관이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515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5개월간 증시에 투입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매달 1030억원씩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 출자 규모는 거래소 2500억원, 예탁결제원 2100억원, 증권협회 500억원, 자산운용협회 500억원 등이다.

이 자금은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 형태로 설정해 3년간 운용할 예정이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도환매가 제한된다. 단일펀드가 아닌 10개 운용사의 각기 다른 인덱스 펀드(사모)에 투자된다. 판매 역시 증권협회 회비 납부기준에 따라 전체 증권사에 인분될 예정이다.

박병주 증권협회 상무는 "공동펀드 조성은 우리 시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며 "공

동펀드 투자가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펀드 조성이 심리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래대금이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일평균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8조원,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월 1030억원 은 시장에 영향을 끼칠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펀드 자금 중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되는 금액은 전체 중 80%(월 824억원)며 나머지는 국공채에 투자된다.

증권가에서는 유관기관 자금 투입에 대해 '일거양득'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놨다. 즉 유관기관들이 증시 급락에 대해 '행동을 했다'는 명분도 세우고 저점 매수를 통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운용사 주식운용 본부장은 "유관기관 당사자들도 월

증권 유관기관 공동펀드 조성

규모	5150억원
투자기간	3년(환매 금지)
투자대상	주식(80%), 채권(20%)
투자방식	11월부터 월 1030억원씩 인덱스 펀드에 투자
기관별 투자금액	거래소(2500억원), 예탁원(2100억원), 증권협회(500억원), 자산운용협회(500억원)

1030억원 자금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자금 전체를 단기간에 코스닥시장에만 쏟아붓는 편이 실질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기관이 나설 때는 사실상 저점에 가까웠던 때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기관들이 스스로 저점에 주식을 매수해 장기 보유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은수·정욱 기자

■ 증시안정펀드 운용 어떻게...

5개월간 주식 4100억 이상 매입

3년만기 인덱스형..중도환매 안해

증시안정펀드 5150억 조성

증권유관기관 18일부터 투입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515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 이르면 이달 18일부터 주식 매입에 나선다. 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네 곳이 공동 출자해 만든 이 펀드는 내년 3월까지 매달 1030억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4개 증권 유관기관들은 6일 증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펀드를 운용할 기금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관련기사 A26면

이 펀드는 상장기업 주식에 80% 이상을 투자하고 시장의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형태로 운

용된다. 주식투자는 유가증권시장 80%, 코스닥시장 20% 비율로 이뤄진다. 펀드 만기는 3년이며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도 환매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별 출자금액은 거래소 2500억원, 예탁원 2100억원, 증협 500억원, 자산운용협회 500억원 등이다. 기금운영위는 오는 14일까지 자산운용사 10곳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18일, 늦어도 20일까지는 투자를 시작할 방침이다.

박병주 증협 상무는 "매달 1030억원씩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펀드가 투자심리와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한 것은 2003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1990년대에도 증시안정기금이 있었지만 이는 펀드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사는 기금이었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은 당초 예상 규모(4000억원)보다 1150억원 확대된 5150억원으로 펀드 규모를 확정지었다. 기관별 출자금액은 거래소 2500억원, 예탁원 2100억원, 증협 500억원, 자산운용협회 500억원 등이다.

운용 방식이 2003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당시보다 전체 자산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10%포인트 높게 책정하고,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전체 자산의 80%를 주식형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국공채를 매입키로 한 것이다. 2003년에 비해 주식 비중은 10%포인트 늘어났고 국공채 비중은 10%포인트 줄었다. 또 유가증권시장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예전 70%에서 80%로 확대되고 코스닥 비중은 30%에서 20%로 축소된다.

주식 비중을 확대한 만큼 과거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2003년 조성된 공동펀드는 연평균 13%(누적 60.5%)의 양호한 수익을 거두고 지난해 8월 해지했다.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 개요

- 투자규모 5150억원
- 운용기간 3년
- 참여기관 거래소 예탁원 증협 자산운용협회
- 투자개시 11월 18~20일 사이
- 투자일정 내년 3월까지 매달 1030억원 투입 원칙
- 투자방법 자산운용사 인덱스펀드 또는 ETF 가입
- 투자비중 주식 80%, 국공채 20%
- 시장비중 코스피 80%, 코스닥 20%

공동펀드 기금운영위는 오는 14일까지 자금 운용을 담당할 10개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펀드는 자산운용사 10개사가 각각 운용하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나 ETF로 설정된다. 펀드 만기는 3년으로 자산 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환매가 제한된다.

펀드 운용은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직후인 이달 18일 내지 늦어도 20일부터 개시된다. 자금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1030억원씩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장건상 증협 부회장은 "유관기관의 공동펀드 투자는 증권시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코스피 닷새 상승분 하루만에 42% 반납

매수세 실종·실물침체 우려 부각 89P 급락...시총 49조 날아가

한·미 간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정 체결 이후 반등세를 이어왔던 국내 증시에 급제동이 걸렸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2800억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자 이를 소화할 매수 주체가 없어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급락, 49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일시에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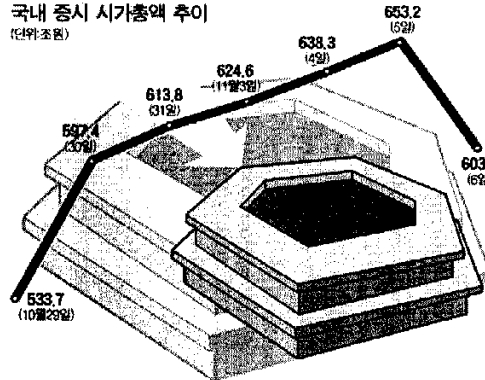
6일 코스피지수는 89.28포인트(7.56%) 내린 1092.22에 마감, 1100선 밑으로 맥없이 무너졌다. 지난달 30일 이후 닷새 연속 반등폭(212포인트)의 42%를 하루 만에 까먹은 셈이다.

이날 주가는 조정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매수세가 없는 수급 공백 상태에서 외국인 매물이 나오자 아무런 저항 없이 하락폭이 갈수록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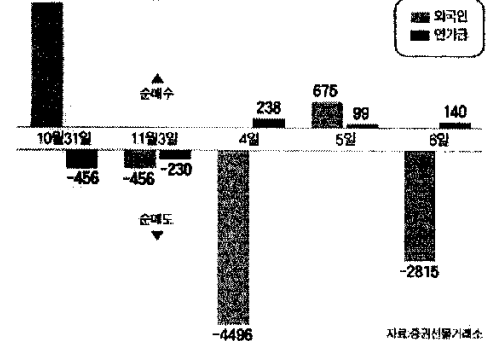
미국 '대선 이벤트'와 '오바마 효과'에 가려 있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다우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는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채 출발했다. 개장 20분도 채 안 돼 유가증권시장에는 울 들어 19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오후 들어서는 미국 최대 생명보험사인 AIG의 분식회계 문제가 느닷없이 불거져 미 정부의 구제금융 집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루머가 퍼져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한 일부 투자자들의 투매성 매도까지 가세해 코스피지수가 99포인트나 떨어지기도 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금리 인하 및 미 대선과 같은 정책 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추이
(단위:조원)



외국인과 연기금 매매 동향
(단위:억원)



외국인 2800억 넘는 매물에 속수무책

벤트가 끝나자 시장의 초점이 다시 글로벌 경기 침체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파트장은 "경기가 나쁜 것은 다들 알지만 미국 등의 관련 지표가 수십년 만의 최악의 수준으로 나오자 투자자들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심각한 매수 공백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신권은 펀드 환매에 대비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려 단순히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데 그치고 있고 연기금마저 지수가 1000 이상으로 오르자 주식 매수에 소극적이다.

연기금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

나 이후 엿새 동안은 오히려 281억원을 순매도했다.

조운남 대신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왔던 때는 연기금이 수급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주가가 오른 지금은 연기금이 침묵하면서 장을 이끌 만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 흐름도 신통찮다. 코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지난달 21일부터 8거래일간 3726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데 비해 순유입으로 돌아선 31일부터 3거래일간 772억원이 순유입되는 데 그쳤다.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던 개인들도

단기에 30%가량 수익이 난 상황에서 1200선 안착에 실패하자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보자며 매물을 던지는 양상이다.

이선업 굿모닝한중권 연구위원은 "국내적으로 건설사 리스크와 은행 부실 우려감 등 해결된 게 없다"며 "2800억원 남짓한 외국인 매물에 지수가 89포인트나 빠진다는 건 경제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극단적인 '패닉'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오현석 파트장은 "1000선 이하는 극단적인 패닉의 산물"이라며 "지수는 1000~1200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업 연구위원도 "지난달처럼 외환위기 같은 대형 악재가 추가로 불거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전 저점(938)이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정환 기자 caosoo@hankyung.com

실물경기 침체 공포가 '오바마 효과' 놀러

국제 금융 다시 불안...향후 2~3개월이 고비

오바마, 조만간 경제팀 꾸려 대책 밝힐 듯

‘오바마 효과’는 이틀을 이어 가지 못했다. 6일 국내의 증시가 동반 하락하며, 전날의 상승세가 꺾였다. 한껏 부풀었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채웠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엄연한 현실인 경기침체가 다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악발 떨어진 '오바마 효과'** =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증시는 동반 급등했다. 그러나 정작 당선이 확정된 5일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유럽 증시가 하락했으며, 이어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도 5.05%나 떨어졌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 게 원인이 됐다. 이어 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실물 임호상 연구원은 “예상보다 경기침체 양상이 심각하다는 게 속속 지표로 확인되자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오바마 효과를 압도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오바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지속될 것이냐에 있다. 하이투자증권 최석원 연구원은 “오바마가 서둘러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주가가 약세인 것은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조만간 경제팀을 구성하고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는 공공공사 확대, 실업자 수당 증액 등에 1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경기부양 대책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또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주택차압 방지펀드 조성 등의 방안도 대통령 취임 전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불안 당분간 이어질 듯**=국제통화기

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경기침체를 벗어나기까지 3~4년이 걸릴 것이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급한 대로 당장의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데엔 향후 2~3개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 분석이 많다.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센터장은 “연말 결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 한국 주식과 채권을 많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외국인들이 연말 결산 과정에서 채권을 대규모로 파는 바람에 시중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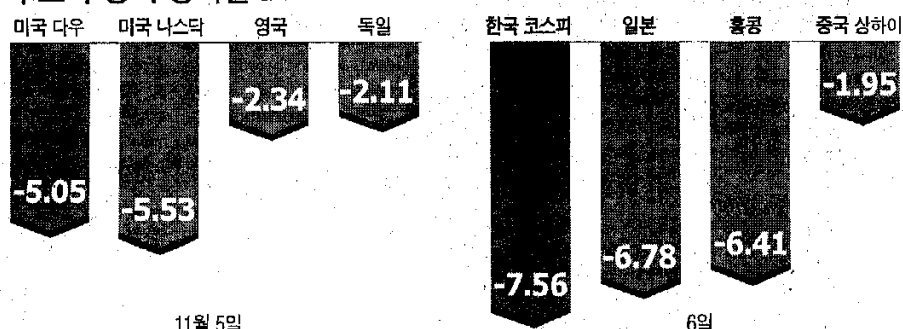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손실을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신증권 성진경 연구원은 “외국 은행들이 그동안 손실을 많이 상각해 왔지만 감춰진 부실이 다 드러나면 상각 규모가 늘 여날 것”이라며 “은행들의 실적 악화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최악의 고비를 넘겼지만, 주가와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과 기업의 외화 차입도 여전히 막혀 있다. 또 외국인들이 주식에 이어 채권까지 팔아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기에금으로 시중 여윌돈이 들어오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은행채 발행금리는 아직 연 7%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부장은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정부의 요구만큼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최현철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주요국 증시 등락률 단위:%



10월 급락장에도 '펀드런' 없었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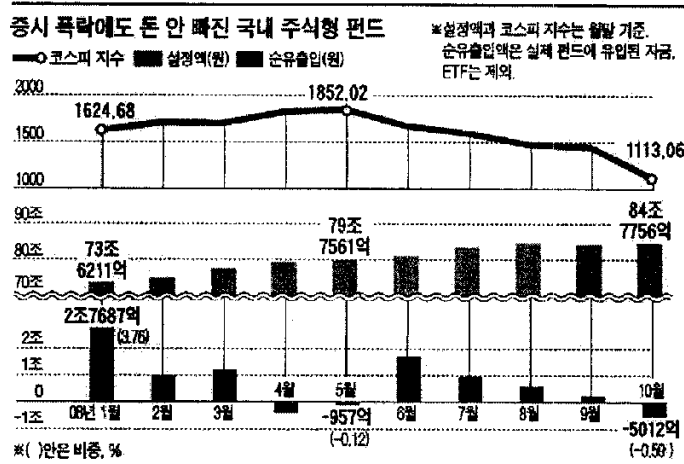
지난달 투자자들은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 사태)' 공포에 떨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환매가 몰리면 기관들이 돈을 내주기 위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게 다시 주가 급락을 불러 환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우려한 것이다.

펀드 자금은 2005년 이후 증시를 받쳐왔다. 2005년 이래 70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의 공세에도 증시가 버텼던 건 펀드 덕분이다.

결과적으로 우려는 우려에 그쳤다. 펀드런은 없었다. 물론 지난달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01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5월 이후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 오던 흐름이 바뀌긴 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다. 빠져나간 돈은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0.59%에 불과하다. 왜 증시 폭락에도 펀드런은 없었을까. 시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든다.

#이유① 9월 말 1448.06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 장중 892.16까지 추락했다. 18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다. 너무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 펀드 투자자들이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

한 인터넷 포털의 재테크 카페에는 "일하다 보면 벌써 4시 반이 넘어 환매를 못했다"는 내용의 글이 많았다. 실제 2조8000억원의 자금이 빠져



- ① 너무 빨리 떨어져 팔 타이밍 놓쳐
- ② 통장에서 자동이체 '적립식의 힘'
- ③ 97년의 교훈 '장기투자 땀 번다'
- ④ 손실 너무 커져 '더 올라야 환매'

나간 지난해 2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100포인트 하락했다.

#이유② 9월 말 현재 적립식 펀드 계좌 수는 2445만 개에 이른다. 9월 전 달에 비해 계좌 수가 36만 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펀드 계좌의 62%가 적립식이다.

적립식 펀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적금과 비슷하다. 매월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너스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해봐도 불입을 중단하는 수준이지 환매까지는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양은희 연구원은 "적립식 펀드가 정착된 지금은 '바이

코리아 펀드'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유③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난 6개 펀드의 10년 평균 수익률(6월 기준)은 239%다. 10년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주가 급락과 정보기술(IT)주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 대우채·카드 채 사태 등 산전수전을 다 겪은 펀드다.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이 예금의 네 배에 육박한다.

급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인식이 확산돼 급한 돈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버티기를 한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원은 "외환위기 학습효과 때문에 증시가 급락해도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지 않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이유④ 펀드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금은 환매하기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300선을 고비로 봤다. 2006년 6월 이후 펀드에 유입된 자금의 평균적인 지수대는 1700선이 다. 코스피지수가 1300선에 진입하면 손실률이 20%로 줄어든다. 이 정도면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환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한국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27면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개설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이사장 김병주)은 인터넷에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Protection.invedu.or.kr)를 열고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투

자자 피해 유형 및 주의 사항,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절차 등 펀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단은 또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 결과 등 펀드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9월말 현재 국내 및 해외펀드
계좌수

해외펀드 885만19,220개

- 해외주식형 755만2,430개

국내 펀드 1,558만8,074개

- 국내주식형 990만1,397개

펀드(국내+해외) 2,443만7,294개



지난해 8월 해외펀드에 가입한 김모씨는 은행에 환매를 문의하러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브릭스 펀드에 2억원을 넣어 평가손실이 1억원이나 발생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환매를 하려면 환차익으로 생긴 3,4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15%)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펀드 결산을 했는데 이미 지난 2007년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사실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50%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환차익 부분은 올 연말에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현행 펀드 세금 과세 구조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 원금 손실에 상관없이 원 차익 이자소득세(15%) 과세
- 브릭스 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의 20% 정도가 환차익 과표

펀드 결산 제도

- 1년에 1회 이상 결산 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 현재 펀드 원금 반 토막 났지만 이미 과거 소득은 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 원금 손실에 상관없이 환차익, 배당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결과적으로 전체 실현 소득이 없어도 과세되는 시스템

펀드 원금 반토막 났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불난 투자자 세금분쟁 나서나

‘실현된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불난 펀드 투자자들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펀드 세금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개인 환차익 비과세,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현행 규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해외펀드 가입자다. 해외펀드는 원화를 달러 등으로 바꿔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환해지를 하는 펀드가 있고 환해지를 하지 않는 펀드(환노출형 펀드)가 있다.

문제는 환노출형 펀드. 브릭스 펀드의 경우 1년 전 1억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5,000만원의 손실을 본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2,000만원가량 이익을 봤다. 환차익을 고려해도 펀드 투자로 3,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는데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펀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펀드의 80~90%를 차지하는 브릭스 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의 20% 정도가 환차익 과표로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나 선물회사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개인이 아닌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부 공식 통계를 보면 10월 초 기준으로 70개 해외펀드 중 환노출 펀드는 670억원.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해외펀드 54조원 중 30%

손실 상관없이 환차익 부문 과세등 ‘3중고’ 재정부 실태조사 불구 개선엔 부정적 입장

안팎인 10조~15조원가량이 환차익이 과세되는 펀드로 추정된다”고 말해 과세를 둘러싼 파장이 상당하 볼 것으로 예상된다.

◇ 펀드 결산 규정, 합산과세로 3중고-해외펀드는 물론 국내펀드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결산하도록 한 ‘펀드 결산 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펀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시에 펀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 1년에 1회 이상 결산해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이다.

펀드 결산 때 90%가량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세금을 제한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1년에 1회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펀드 손실에 상관없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환차익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펀드 전체로는 손해를 기록했는데도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제도 개선되나-펀드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거듭되면서 재정부는 최근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등 펀드 세금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부정적이다. 대량 환매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차익에 비과세하면 환율이 안정될 때 다시 문제가 되고 대량 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국인이 많이 투자한 베트남은 우리 자본이 조금만 빠져도 증시가 바닥을 칠 수 있다”며 국제 문제까지 결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펀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세법 전문가는 “펀드 세제 규정을 당장 고치기 어려울 경우 펀드 발생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잠시 유보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일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bj@sed.co.kr

신경림기자 kslin@sed.co.kr

비과세 장기社債펀드 판매 부진

출시 일주일~5개 상품 합쳐 39억 그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새로 부여한 장기 회사채펀드가 출시된 지 1주일만 지났지만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일 펀드로는 통상 100억원 이상의 단위로 거래되는 회사채를 매입할 자금이 모자라 펀드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시중에 출시된 5개 장기 회사채펀드의 판매액은 전날 기준으로 총 39억원에 그쳤다.

가장 많이 팔린 '푸르덴셜장기회사채'가 18억원에 그쳤고 'SH장기회사채'는 4일 동안 판매액이 1억여원에 불과하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지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산은장기회사채'는 겨우 4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처럼 장기 회사채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 개인당 최고 3000만원으로 제한돼 채권형펀드의 주요 고객인 법인은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증권사 판매직원은 "여유자금을 가진 개인들은 저축은행 등 은

비과세 회사채 펀드 설정액 현황 (단위:억원)

펀드	설정액	설정일
산은장기회사채 1	0.40	10월29일
SH장기회사채형채권 1	1.33	10월31일
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 1	5.92	10월29일
한국투자비과세장기회사채형채권 1	13.38	11월3일
푸르덴셜장기회사채형 1	18.16	10월28일

*불래스칼 펀드가 있는 경우 모두 합한 수치임. 자료:자산운용협회

행권의 고금리 상품이 많은 상황에서 3년간 환매가 금지된 데다 투자상한이 3000만원으로 정해진 장기 회사채펀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장기 회사채펀드를 만들고도 판매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실제 장기 회사채펀드로는 지난달 말까지 10개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5개만 팔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시장에서는 통상 100억원 이상의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10억원도 안되는 돈으로는 회사채를 사기가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같은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채권형펀드가 인수하고 남은 회사채를 편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서울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08면

은행 '밀물' 시중자금 펀드 '썰물'

10월, 은행예금에 22兆 유입... 펀드선 9兆 이탈

주가 급락과 은행의 고금리 복판 영향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다. 10월 한 달간 은행 예금에 22조원이 몰린 반면 주식형 채권형 펀드에서는 9조원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수신은 21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 9월의 7조4,0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9월 2조원

에 불과했던 정기에금 증가액은 10월에 19조원으로 불어나 지난 1월(20조4,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는 발행 여건이 악화하면서 전달보다 각각 3조5,000억원, 2조2,000억원 급감한 3,000억원, 7,000억원 순발행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서는 자금 탈출 행진이 이어졌다. 주식형펀

드는 9월 -1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이탈 규모가 커졌고 채권형펀드도 2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혼합형펀드와 신종펀드 역시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초단기상품인 미니마켓펀드(MMP)에만 12조3,000억원이 몰려 최근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투자자금의 불안심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전달 5조원에서 10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한국밸류는 사고 미래에셋은 팔고

지난 10월 급락장에서 가치주 투자로 널리 알려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중소형주 위주로 주식을 사들인 반면 공격적 투자의 대명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해 비교가 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 10월에 보유 종목 중 13개 종목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다. 지분 매입률은 종목당 0.01~0.55%로 소폭에 그쳤지만 한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는 동안 가치주 투자로 정평이 난 운용사가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밸류는 이오테크닉스를 0.55% 추가 매수했고 우주일렉트로닉스·다엠에스·대덕GDS 등의 지분도 사들였다. 대한방직·가온전선·경동도시가스·동일방직도 지분을 늘렸다. 지분을 줄인 종목은 동양건설산업 1개로 지분 감소율은 0.01%에 불과했다.

이제원 한국밸류 부사장은 공사에 앞서 펴낸 자산운용보고서에서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턱없이 떨어진 종목 비중을 늘려가고 펀드 종목을 압축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10월 초부터 "공포가 시

한국밸류 이오테크닉스등 중소형주 매수
미래에셋 효성·기아차등 3% 이상 대거처분

● 한국밸류 및 미래에셋 10월 지분변동 현황

				(단위:%, %포인트)					
운용사		종목명	지분율	증감	운용사		종목명	지분율	증감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용		가온전선	11.43	0.04	미래 에셋 자산 운용		삼성물산	9.27	1.88
		경동도시가스	10.86	0.07			제일모직	16.30	1.14
		넥센	9.91	0.06			유한양행	14.50	1.12
		다함이텍	11.82	0.09			동아제약	9.12	1.00
		대덕GDS	10.22	0.24			소디프신소재	12.87	0.13
		대한방직	11.13	0.01			LS	15.90	0.03
		동일방직	11.14	0.06			한진	10.50	▽0.08
		선진	10.76	0.20			한진해운	4.91	▽0.13
		아이디스	10.82	0.02			서울반도체	9.82	▽0.20
		우주윌렉트론닉스	12.39	0.35			두산	12.94	▽0.32
		유성타앤에스	11.13	0.01			현대중공업	4.99	▽0.42
		이오테크닉스	11.46	0.55			SK케미칼	8.69	▽0.55
	다엠에스	11.00	0.03		동양제철화학	11.92	▽0.79		
	동양건설산업	11.22	▽0.01		대한해운	7.05	▽1.26		

장에 빠져 있을수록 집중 매수에 나서야 한다"며 "역발상 투자론"을 주창해 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효성(-4.67%)과 기아차(-3.58%), GS건설(-3.43%) 등의 지분을 3% 이상 대거 처분한 것을 비롯해 현대건설·대한해운·동양제철화학·현대중공업 등의 주식

도 팔았다. 지분을 추가 매입한 종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유한양행 등 일부에 그쳤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직원들에게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절호의 투자기회"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fiat@sed.co.kr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판매 재개

'인디펜던스1호'도 다시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판매를 중단했던 일부 펀드의 신규 가입을 재개했다. 당시 펀드 붐이 불면서 펀드 규모가 급속히 커지자 판매를 중단했다가 최근 환매로 자금이 빠져나감에 따라 신규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디스커버리주식형펀드 1,2,3,4호와 인디펜던스주식형 펀드 1호 등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커버리1호는 펀드가입자가 급증하자 운용 효율성을 이유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다. 인디펜던스1호도 작년 9월17일 가입 중단 조치 후 1년2개월 만에 다시 신규자금을 받기로 했다.

미래에셋 측은 "장기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디스커버리1호의 3년간 누적 수익률은 32.31%, 인디펜던스주식형펀드1호는 16.51%를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펀드의 1년 수익률은 모두 -40%가 넘는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펀드의 환매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국내 주식형펀드 중 환매로 수탁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10개 펀드 중 9개가 미래에셋펀드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판매가 재개된 디스커버리2호에서 838억원, 1호에서는 681억원, 3호에서는 607억원이 빠져나갔다. 또 인디펜던스1호에서도 592억원의 환매가 일어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병아리 펀드’ 믿어도 괜찮겠니?

신생 운용사 수익률 집중 분석

주가가 빠른 시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펀드판매 욕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몇 십%씩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판매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판매를 한다는 것도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해줄 수 있는 대안 투자상품도 마땅한 것이 없다.

이 기회에 지지부진한 펀드가 있다면 구조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주가가 낮아진 요즘 출시된 펀드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한다. 향후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아직 운용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상 신생 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러스톤·메리츠·에셋플러스 선전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47개 자산운용사 중 올해 새로 생긴 운용사의 성적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직 운용하는 펀드수가 많거나 설정액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사태 이후 지난 5일까지의 수익률을 따졌을 때 트러스톤운용(-9.24%)이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운용(-13.01%)·에셋플러스운용(-13.75%)의 성적도 각각 4번째·7번째로 좋았다.

지난 5월 이후 설정된 펀드들 중 주요 16개 펀드의 리먼 사태 이후 평균수익률(-11.46%)은 국내주식형평균(-14.19%)이나 해외주식형 평균(-

37.73%)보다 좋았다. 블랙록운용의 ‘월드에너지주식-자(UH)(S)’(-0.86%), LS운용의 ‘장수기업포커스주식1A’(-5.87%), 트러스톤운용의 ‘칭기스칸국내주식(A)’(-9.18%), GS자산운용의 ‘골드스토프주식1clsC2(자)’(-10.07%), 에셋플러스운용의 ‘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자1’(-13.75%) 등이

주가하락 충격 덜해

최근 성적 괜찮은 편

검증된 실적 없어

투자 신중하게 결정해야

나름대로 선방했다.

신규 운용사 및 펀드는 주가하락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평가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고 해당 펀드에 투자했다가 고점 부분에서 물린 투자자도 거의 없다는 점이 어찌를 가볍게 한다는 말이다. 김순영 대신증권 펀드연구원은 “최근 신생 운용사들의 경우 펀드운용 시작점이 바닥 부근이라 성적이 좋게 나오는 편”이라며 “주가 급락으로 운용스타일이 흔들리는 일부 기존펀드들이 느낄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투자 고수’ 등 대표 경력도 화려

회사는 새내기지만 인력의 면면이 화려한 곳도 많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운용 회장은 1997년 말 1억원 종자돈으로 1년10개월 만에 156억원을 벌어들인 신

화의 주인공이다. 에셋플러스운용은 전신인 투자자문사 때부터 씨름 뿌린 증권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운다. 트러스톤운용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이 전신이다. 운영총괄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박건영 대표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출신으로, 미래에셋운용의 초창기 급성장을 주도했던 대표적 펀드매니저 중 한 명이다.

이외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 100% 자기자본을 출자해 만든 엠플러스운용은 부동산 투자에 특화돼 있다. 다음달 해외부동산 관련 사모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미국 금융그룹 리자드의 계열사인 리자드코리아운용은 2006년부터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해 한국을 잘 아는 외국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블랙록자산운용은 뉴욕에 본사를 둔 외국계로 글로벌 운용자산만 1428조 원으로 세계 5위권에 올라 있는 회사다. 이미 1995년 한국에 진출한 뒤 60

여 개에 달하는 역외펀드를 판 경험이 있다. GS그룹과 LS그룹이 출범시킨 운용사도 있다. 델타투자자문이 전신인 LS운용은 한국투자신탁(현 한국투자증권)에서만 27년이나 근무했던 황윤하 사장이 작년부터 자리를 옮겨 와 회사를 이끌고 있다. GS운용은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것으로 평평이 난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 김석규 사장을 필두로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GS그룹 산하 GS리테일(편의점 GS25)과 GS홈쇼핑을 통한 펀드판매도 고려 중이다.

◆신중한 검토는 필수

다만 새로 생긴 운용사나 펀드라고 무조건 투자하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거 운용 실적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만일 신규펀드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3~4개월간 투자성적이 괜찮은지 정도는 확인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최근 설정된 주요 펀드 수익률(%)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수익률	
			9/7~11/5	8/5~11/5 (3개월)
블랙록월드에너지주식-자(UH)(S)	블랙록운용	9/9	-0.86	
LS장수기업포커스주식1A	LS운용	10/1	-5.87	
트러스톤칭기스칸국내주식(A)	트러스톤운용	6/27	-9.18	-15.15
트러스톤칭기스칸국내주식(C)	트러스톤운용	6/27	-9.29	-15.33
GS골드스토프주식 1cls C 2(자)	GS자산운용	9/10	-10.07	
GS골드스토프주식 1cls C 1(자)	GS자산운용	9/10	-10.22	
메리츠Vintage2004적립식주식플래스C-1	메리츠운용	5/19	-12.23	-20.80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자 1	에셋플러스운용	7/7	-13.75	-21.50
라자드코리아주식종류형ClassA	라자드운용	10/1	-17.59	
국내주식형 평균			-14.19	-22.56
해외주식형 평균			-37.73	-38.75

(자료원, 9/7~11/5 수익률 순, 설정일은 2008년)

오바마 당선 덕 볼것으로 예상되는 펀드	펀드		설정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미국 펀드	신한BNPP봉쥬르미국주식자(H) ClassA1	59	-17.47	-23.40	-27.81	-33.92
		미래에셋애크스US블루칩인덱스주식 CLASS-A	14	-21.75	-23.66	-32.68	-35.57
		피델리티미국종류형주식-자(A)	44	-24.82	-29.68	-37.08	-42.95
		미래에셋애크스인덱스글로벌뱅크주식형자C-i	10	-23.63	-14.38		
	글로벌 금융주 펀드	삼성글로벌파이낸셜서비스주식종류형 1_A	188	-21.84	-24.41	-38.81	
		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종류형주식-자(N)	11	-19.06			
		하나UBS글로벌금융주의귀환주식Class A	280	-25.07	-18.48	-40.82	
		한국월드와이드월스트리트투자은행주식 1(A)	808	-27.43	-31.21	-46.28	-53.11
	(단위 = 억원·%)	북미 주식 유형 평균(대상수: 7개)			-21.86	-26.92	-33.15
해외 주식형 유형 평균(대상수: 775개)			-27.29	-40.58	-48.04	-56.16	

미국펀드로 눈 돌려볼까

직접투자자 사이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당선 수혜 종목 찾기가 활발하듯 펀드시장에서도 관련 펀드들에 기웃거리는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망 개별 종목을 근거로 이름이 비슷한 펀드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펀드 이름만 보면 '오바마 펀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만 편입 종목을 보면 이름과 다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혜 종목과 함께 비수혜주들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섹터펀드 중에서는 한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금융주 펀드가 유일하게 '오바마 당선 수혜 가능 펀드'로 꼽혔다. 또 구체적인 섹터에 구애되지 않는 미국 투자 펀드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에서는 오바마 당선과 함께 환경·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전선, 통신장비주에 대한 수혜를 점치고 있다. 관련 종목이 편입된 종목은 헬스케어펀드, 대체에너지 펀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이수진 제로인 연구원은 "헬스케어펀드와 대체에너지펀드는 주요 종목들이 각각 제약주와 자동차, 에너지주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펀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기업 규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신생산업인 사례가 많아 펀드에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는 힘들다. 즉 오바마 후보 당선에 꼭 헬스·환경 관련 펀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다만 섹터펀드에서는 글로벌 금융주 펀드 등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는 최근 CNN과 인터뷰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붕괴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고서는 다른 과제를 살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미국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글로벌 금융주 펀드들은 수혜가 가능

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펀드 가입 시점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글로벌 금융주펀드들은 총 5개 상품으로 대부분 펀드가 설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성과 역시 부진하다. 유알하게 1년을 넘긴 한국월드와이드월스트리트투자은행주식은 1년 손실이 53% 선이다.

시야를 넓혀 특정 섹터가 아닌 미국 펀드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펀드 투자 중 선진국펀드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향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 미국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김휘곤 삼성증권 펀드연구원은 "미국 펀드는 선진시장 중에서도 안정적이며 앞으로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에 3개 뿐이다. 선진국펀드 특성상 하락률 역시 전체 해외 주식형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정욱 기자

美 금융시스템 안정되면

글로벌 금융주펀드 덕볼듯

잠시 잊었던 이른바 'R(Recession·실물경기 침체)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증시가 6일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오바마 효과'가 채 가시화하기도 전에 나타난 이날 주가 급락으로 증시가 경기 침체 열려에서 결로 자유로

울 수 없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줬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로 시작된 이번 경기 침체가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할 때"라고 강조했다.

R공포 넘실댈 땐 이런 주식 돋보인다

<Recession·경기침체>

① 부도 위험없는 대형 우량주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7.56% 하락한 1092.22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일본(-6.53%)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정승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0월 고용지수가 6년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ISM서비스업지수도 예상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경착륙에 대한 염려도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실물경기 악화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시도 내년 하반기 이후나 돼야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이선업 굿모닝한글증권 연구원은 "긴 경기 침체기엔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경기 악화에도 부도 위험이 없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② 실적 꾸준한 업종 대표주

가장 먼저 추천받은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업종 대표주들이다. 오랫동안 안정성을 검증받은 주식이란 점에서 경기 악화로 인한 약세장에서 훌륭한 대안이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가격 인하 경쟁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재무구조도 튼튼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업종 대표주는 증권장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꼽힌다. 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단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경우에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 빠르게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의 수혜도 기대된다. 반도체·LCD업체 중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감산을 선언하거나 매출로 나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자동차업체도 감산과 인수·합병(M&A)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고비를 넘긴다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현금보유액 많은 자산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돈이 쉽사리 들지 않는다. 은행과 건설사 주가 움직임이 나쁜 이유도 갑작스럽게 자금 흐름이 막힐 경우 회사가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작고 보유 현금 많은 기업이 투자처로 각광받게 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이 꼽힌다. 현대중공업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현금을 뺀 잉여현금흐름(FCF)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포스코와 에스엘, 휴켄스 등도 보유 현금이 많고 꾸준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혔다.

조은남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 등 현금등가물은 경기 침체에 가지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며 "진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이유로 경기 침체에 중소형주 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④ 불황에 강한 경기방어주

경기 침체가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경기방어주도 좋은 대안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폭락장에서 코스피가 23.13% 하락하는 동안 9.01% 하락에 그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이 통신주다.

SK텔레콤은 이익 창출이 안정적이고 통신사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KT&G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농심은 곡물 가격 하락과 원화 환율 안정 수혜주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당주 역시 경기 침체기의 투자 대안으로 꼽혔다. 경기에 따라 실적은 줄어들더라도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액)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안정적일 수 있다.

김동은 기자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종목

추천 이유

대표 종목

글로벌 우량주

경기 침체 불안 뒤 시장점유율 확대될 가능성 큼

- 삼성전자 - IT 기업 중 세계 최고 경쟁력
- 현대차 - 경기 불황시 소형차 경쟁력 향상
- LG전자 - 경쟁업체 대비 견조한 수익성

현금성 자산 보유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은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 있음

- 포스코 - 잉여현금흐름 풍부, 수익성 악화도 제한적
- 현대중공업 - 잉여현금흐름 3조 3000억원 수준

경기방어주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민감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한 수익률 기록

- SK텔레콤 - 유·무선 부문 결합 서비스 출시로 유망
- 농심 - 곡물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
- KT&G - 국내외 담배 제품가격 상승 수혜 기대

배당주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되고 지수 대비 안정적 주가흐름 보일 가능성 큼

- 에스엘 - 기계소 대형주 중 시장 대비 3년 평균 배당금 상위
- 현대미포조선 - 5% 이상의 배당수익률 기대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피하라.'

실물경기 침체 국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다.

신용위기가 뒤를 따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이 겪게 될 유동성 문제는 예전에 비해 그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을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진경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기업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핵심은 어떻게 현금을

건설·은행... 유동성 위험주·경기민감주는 피해야

충분히 가져가느냐"라며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안고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면 당분간 멀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재무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회사는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거론되는 건설업체들이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각 건설업체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관련 비용만 증가시켜 실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시장을 기웃거리지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야 겨우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어렵다고 전한다.

은행도 유동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PF 문제가 터지면 그 부담은 은행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PF 부실에 따른 연체율이 갈수록 증가해 현재 14%대에 이른다.

건설업체의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업체 자금정착에

다른 은행권 부실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재 산업재 자동차 등도 경기 침체기엔 피해야 할 주식들로 꼽힌다. 경기에 민감한 특성상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면 순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실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선·철강은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들은 지난달 한건도 수주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철강 가격도 수요 감소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문수인 기자

□ 오바마 당선이후 또 입증된 증시교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증시 '오바마 효과'는 채 하루를 넘기를 못했다.

6일 코스피는 물론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도 며칠 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장중 한때 100포인트 이상 밀리는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며칠째 급등세를 탔던 오바마 테마주들은 더 처참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오바마 당선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다.

1. 역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공화당의 실정 때문에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선 오바마의 승리가 일찌감치 예견된 터였다.

최근 리보금리 안정 등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는 국면과 오바마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증시에 반영되면서 폭등을 이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도 그랬고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전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증시 격언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들어맞은 셈이다.

2. 급등 후엔 숨고르기 자연스럽다

코스피가 5일 연속 상승한 후 급락하면서 다시 11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5일 연속 큰 폭 상승세를 이어갔던 만큼 기술적

측면에서도 조정은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다. 개별 재료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테마를 타는 주식일수록 무엇보다 큰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성열에스티는 단 5일 만에 주가가 76% 뛰었다.

3. 펀더멘털과 무관한 상승은 거품이다?

단조업체 유니슨은 5일 연속 상승하면서 네 번이나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을 정도로 테마주로 부상했으나 6일 하한가로 고꾸라졌다. 유니슨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31배, 주가수익비율(PER)이 무려 84.27배로 고평가된 주식이다. 한솔홈데코나 웅진홀딩스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계열사 종목도 실적에 비해 과대평가돼 추락은 예견됐다.

4. '오바마 테마'는 장기 호재?

오바마 수혜주의 단기 급락은 예견됐으나 핵심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회사라면 폭락장에 두려움을 갖고 하투아침에 매도하는 것도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환경·에너지·바이오 산업 육성 등 오바마의 신산업 정책은 최소한 미국 민주당 집권 5년간은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와 석유 등 에너지 절감은 전 지구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여서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한나 기자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될듯

美 MSCI 회장등 방한 12일 최종 조율위한 회의... 연내 가능성 커

한국 증시가 지난 9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ITSE) 선진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내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은 미국의 일부 연기금 투자자들과 함께 다음주 서울을 방문한다. 오는 12월에 있을 MSCI의 국가분류 결정에서 한국시장을 선진 시장으로 편입할지 여부를 최종 조율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MSCI 회장과 해외 투자자들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이 만나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쟁점으로 부각될 사항은 '외환거래 자율성'과 '금융시장 데이터 접근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CI 측이 한국의 선진 지수 편입

"지정학적 위험등 더이상 걸림돌로 작용안해"

● MSCI선진시장 편입 요건

선진시장 편입 조건	기준	한국
시장열린성		미흡
외국인 투자자 주식 소유 제한		통과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제한		통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식시장 운영		통과
투자자금의 완전히 자유로운 환전		미흡
자수산정을 위한 시장규모		통과
지수편입기업 시가총액(상장)	2,048백만달러	통과
지수편입 기업 시가총액(유동)	1,042백만달러	통과
연간주식 회전율(금액 기준)	20%	통과
경제발전		통과
고소득 국가	World Bank 기준	통과
경제발전의 안전성		통과
지정학적 위험		미흡

과 관련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던 부분은 제한된 외환시장에 따른 환전 문제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등 두 가지였다. 그러나 MSCI 측은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진전된데다 금융시장과는 분리된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정학적 위험은 더 이상 걸

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거래 자율성에 대해서는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동시에 개·폐장하기 때문에 주식투자 대금을 위한 환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MSCI 측의 지적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내 기관 등은 역외선물환시장(NDF)이

나 장외 외환거래 등을 통해 외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MSCI 측에서 한국 거래소의 실시간 주가 데이터 제공을 원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MSCI 측에서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을 대동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며 "한국 측에서도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국내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봉 삼성증권 퀀트파트장은 "FTSE선진지수 편입 결정사에도 외환거래 자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며 "외환거래 이외의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배기자 lb@sed.co.kr

이해진기자 hasim@sed.co.kr

금리하락기 전망 좋은 은행채 다시보자

최근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최대 10조 원가량 매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아지면서 은행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자금사정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금리도 하락(채권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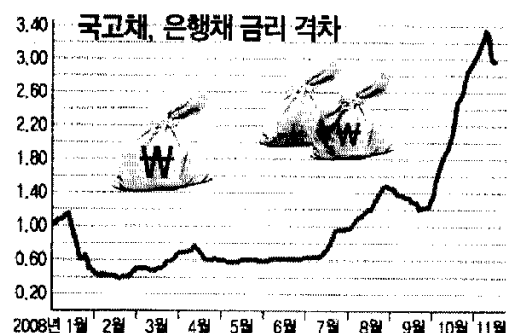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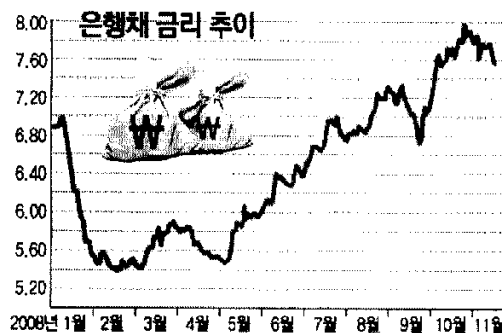
회사채보다 신용등급 면에서 안전하면서도 절대금리 자체가 높아진 은행채에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진한 실적으로 고민하는 은행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다.

● 매력 높아진 은행채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3년물 은행채(AAA) 금리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급등해 10월 16일 7.98%까지 오른 뒤 이달 5일 7.56%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고채 3년물과 은행채 3년물의 금리 스프레드(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3.35%포인트나 됐던 금리 격차는 이달 3일 3.06%포인트, 4일 3.00%포인트, 5일 2.97%포인트로 좁혀드는 추세다.

SC제일은행이 최근 실시한 바이백(buy-back·이미 발행한 은행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이 이달로 끝난 것과 관련해 채권 전문가들은 은행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인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SC제일은행은 1조 원 규



정부 지급보증으로 안전성 높아져 신용등급-재무건전성 따져 매입을

최근 나와 있는 은행채 상품

종목	만기일	수익률(세후)	신용등급
신한은행 11-04 미 2A	2009년 4월 3일	6.15%	AAA
신한은행 11-10 미 1E	2009년 4월 29일	6.31%	AAA
우리은행 12-04 미 1.5 갑-03	2009년 10월 3일	6.7%	AAA
우리은행 11-06 미 02 갑-20	2009년 6월 20일	6.59%	AAA
국민은행 2804 미(3)1.3-02	2009년 7월 2일	6.6%	AAA

자료: 우리투자증권

모의 은행채 바이백을 실시했지만 1900억 원이 용달해 1000억 원의 물량만 흡수됐다.

유진투자증권 김정호 상무는 "최근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채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다"며 "향후 국고채와의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면 금리 하락에 따른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은행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해당 은행 건전성지표 꼭 확인

은행채는 증권사를 통해 살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도 매입할 수 있다.

증권사마다 판매하는 채권의 종류와 금리가 다른 만큼 여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매입할 채권을 고르면 된다.

우리투자증권 김종석 용산지점 차

장은 "금리 조건도 좋고, 특별히 투자금액에 제한도 없는 만큼 은행채에 투자할 만하다"며 "다만 매입 채권을 고를 땐 신용등급, 해당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꼭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고정이익이익비율 등이 있다. 이 중 BIS 비율은 통상 10%를 넘어야 우량은행으로 본다.

은행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도 은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신용등급 AAA 이상인 국내 우량 은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난달 31일부터 판매 중이다.

하나대투증권도 시중 은행채에 투자하는 '플러스탑시드 은행채 채권투자신탁 펀드'를 지난달 28일 내놨다. 자산의 60% 이상을 시중 은행채에 투자하며 투자기간별로 3개월 이상인 1호, 6개월 이상인 2호 등 두 종류가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한은 은행채 매입... 추가 금리인하 예상

‘등 돌린 기관’ 채권시장 찾을까

7일부터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채권시장에 ‘흔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75bp(1bp는 0.01%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표금리인 국고채와 은행채 간 스프레드(금리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신용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은이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5조~10조원에 달하는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시중자금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채권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고채와 은행채 간 328bp까지 벌어진 스프레드가 한은 은행채 매입 이후 200bp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시중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가 지속되는 데다 국고채 지표물 위주로 수익률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책효과 높이기 위한 방안 ‘뚫물’
정부 통화정책은 단순히 금리 인

2008년 국고채 은행채(AAA) 수익률 현황 (단위: % 스프레드는 bp)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고채(3년)	5.04	4.97	5.10	4.88	5.46	5.90	5.80	5.77	5.74	4.47
은행채(3년)	5.50	5.38	5.80	5.47	6.07	6.59	6.85	7.14	7.51	7.73
스프레드	46	41	70	59	61	69	105	137	177	326

자료: 한국증권업협회

5~10兆 규모 자금에 신용등급 낮은 기업 안정세

하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RP대상 채권의 범위에 은행채를 포함, 5조~10조원을 매수할 계획인 데다 단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9일 불 RP 지원에도 나섰다.

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파급정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고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NH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이 같은 한은의 유동성 대책 마련으로 그동안 불거졌던 시중 유동성 위기 국면은 어느 정도 해소단계에 들어섰지만 남은 문제는 전 세계적 인 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카드채 사태 당시에도 시중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 국면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SK증권 양진모 연구원은 “현재 나와 있는 유동성 대책은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정책은 금융기관 간 자금시장 회복과 이를 위한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 하락 및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 반전을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그동안 신용채 매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기관들도 점차 은행채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등 채권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은행채 등을 편입한 채권형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이는 국고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자 상대적으로

값이싼 신용채로 매기가 이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국고채 금리 급락이 더 필요할 것으로 채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스프레드 축소 위해 회사채 활성화 ‘급선무’

정부의 일단 유동성 대책으로 은행채발 유동성 위기는 진화되고 있지만 회사채 활성화는 여전히 ‘감각부소식’이다.

경기 둔화와 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및 부실 우려 등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여전히 국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해도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당분간 신용 스프레드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경기 둔화와 대수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통화당국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회사채 수요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l kiki@innews.com | 김태경기자

해외 기업들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경기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기업공개(IP O) 시장은 이미 한겨울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했거나 추진 중인 해외 기업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힘들게 상장해 성공해도 지지부진한 주가, 국내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외기업 국내상장 “한숨만...”

▶ 투자자들 주가급락 직격탄

화풍방직 공모가 20% 가격에 거래

▶ '2년내 55곳 유치' 공언 지지부진

상장절차 불편·상장후 관리 어려워

KOSPI

상장·상장예정 외국기업 현황 (단위:억)

구분	기업명	국가	업종	매출액 (2007년)	인수액 (2007년)	주변사
상장	3노드 디지털	중국	유통기기	688억	1075 (2500)	신영 증권
상장	화풍 집단지주*	중국	섬유 염색	812억	1020 (5800)	대우 증권
상장	코웨이 홀딩스	중국	카메라 모듈	427억	580 (2000)	교보 증권
상장예정	연합과기 집단지주	중국	섬유 인조피혁	780억	4000	대우 증권
상장예정	TekAuto	일본	PC 재활용	156억	7000	삼성 증권
상장예정	Napoli	일본	휴대폰 사이드 문정	648억	-	삼성 증권
상장심사	중원 어업*	중국	양양어업	481억	-	현대 증권
상장심사	중국 식품포장	중국	포장용기	383억	-	국민 신한증권

* '포시'는 코스피시장 상장·상장예정, 나머지는 11월6일 종가 기준 자료: 증권선별거래소

■해외 기업 국내상장 ‘침체산중’
6일 증권선별거래소에 따르면 화풍방직, 3노드디지털, 코웨이홀딩스 등 3개의 해외 기업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연합과기, 티스퓨처, 네프로아이티 등은 상장을 준비 중이다. 상장 심사 중인 기업은 중원어업, 중국식품포장 등이 있다.

증시 폭락 여파가 해외 기업들에 도 고스란히 미쳤다. 지난해 11월 26일 상장된 화풍방직의 경우 공모가가 5800원이었지만 이날 주가는 1020원으로 5분의 1 토막난 상태다. 3노드디지털도 2500원의 공모가로

시작했지만 이날 하한가를 기록하며 1075원까지 급락했다. 코웨이를 당스는 2000원의 공모가에서 510원까지 추락했다.

국내 증시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은 많지만 투자자들의 인식은 좋지 못하다.

연합과기 장흥걸 사장은 “현재 중국 본토에 상장 대기 중인 회사가 많은 상황이라 다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해외상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섬유·방직산업 등을 영유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 사랑산업 업체라는 인식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장절차 간소화 등 지원 부족

거래소는 2년내에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3%인 55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외 기업들은 상장 과정이나 상장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한 관계자는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상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상장 후에도 한국 투자자들에게 제 공되는 분석보고서도 적어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영문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되고 있어 언어 장벽으로 해외 기업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이 밖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해외기업에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해외상장유치 태스크포스(TTF)팀 최규준 부장은 “주관사와 발행 기업들 사이의 시스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회계처리관습 등으로 상장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21@nnews.com|이창환기자

“주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묻지마 장세’에 애널리스트는 괴로워

최근 A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종목의 전망을 알고 싶어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난처한 경험을 했다.

심적 발표를 보니 상황이 좋을 것 같아 종목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문의한 A씨는 처음에는 그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마치면서 A씨는 그 종목의 향후 전망을 물어 보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릅니다”였다.

요즘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증시 전망은 조심스럽다 못해 자포식 같다. 북북무답이다. 증시전망을 물어 보기 위해 담당 종목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면 자신 담담이 아니라며 상황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다시 상황담당자는 자신은 전체적인 증시를 담당하지 종목은 하지 않는다고 다시 넘기는

등 몸 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어느 정도 지속될 줄 알았던 ‘오바마 펠리’조차 1일 전하로 끝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종목이나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종목에 대한 전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연구원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가 리서치 센터의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못해 몸을 사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내부적으

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고 그 이후 반등이 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사흘 여의도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요즘 증시는 기준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등 각종 분석의 틀이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 차후에 외국인이 팔았다거나 글로벌 침체의 영향이라는 등 사후 분석밖에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먹히니 전문가인 나도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제는 문의 전화도 뜸해졌다”고 고백했다. hit8129@innews.com | 노현섭기자

매일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28면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서울시, 계획안 금융위에 제출

여의도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같은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개발계획안’을 오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제18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397만㎡ 일대(국회의사당 용지 제외)를 금융중심지 후보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증권 유관기관이 밀집한 여의도 중심업무

지구 28만8044㎡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고층 고밀도의 최고급 오피스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로 선정되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제·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서울 외에 부산 인천 제주 등이 금융중심지 후보지를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중심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 중 업무시설이 들어설 중심업무 지구는 현재 지구 내 오피스 면적이 1745.241㎡에 달한다.

김선걸·이호승 기자

증권사 지급결제 놓고 갈등 고조

금융위 “결제망 참가금 낮춰라” 은행 압박
은행권 “민간 결정 사안…월권행위” 반발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증권사 지급결제망 참가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민간 자율 결정 사항인 지급결제망 참가 조건에 개입, 증권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여를 위한 특별 참가금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증권업협회 고위 관계자가 참석, 금융결제원이 정한 참가비의 최고 50%까지 깎

아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업무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취급이 허용되고 실무를 맡은 금융결제원은 전산설비 투자 및 결제망 안전성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증권사 자본 규모에 따라 173억~291억원의 참가비 납부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증권업협회는 그러나 참가비가 과도하다며 회원 증권사들로 하여금 지급결제망 참여를 거부토록 해 자동법 시행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D사 한 곳만 가입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회의가 자동법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한 금융위가 증권업협회의 요청을

증권사 지급결제망 참가비 인하 요구안

구분	금융결제원 안	증권협회 요구안
A그룹	241.3~291.3억원 4년 분납	금융결제원 안에서
B그룹	191.7~226.3억원 5년 분납	A·B그룹 증권사 20%
C그룹	173.9~209.2억원 6년 분납	C그룹 증권사 50% 인하

*A그룹: 자기자본 1조원 이상, B그룹: 5000억~1조원 미만, C그룹: 5000억원 미만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참가비의 20%, 소형 증권사는 50%까지 낮추고 5년 분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결제원 측에 이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망 참여 조건은 금융결제원 회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금융위가 증권협회의 요구에 동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의 참

석이 배제된 것 자체가 중립적인 일 처리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라며 “금융위의 월권 행위이자 전형적인 관치금융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결제원이 제시한 조건에 증권사 규모에 따라 4~6년간 분납을 허용, 사실상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한 만큼 추가적인 할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제원은 지급결제망 참여 금융사의 추가 선정은 회원 은행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성기 기자 sglee@hankyung.com

“부도를 낮은 한국 모기지채권 해외선 매력적 투자대상 될것”

증권연구원 심포지엄

“한국의 모기지(주택담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증권(MBS), 프로젝트파인낸싱(PF) 등이 도마에 올랐다.

그렇다면 국내 은행들은 막대한 모기지 재원을 고객 예금과 은행채만으로 조달해야만 할까. 대답은 ‘아니오’다. 특히 한국은 시급히 모기지를 ‘증권화’시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6일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금융 패러다임 변화’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박연우 증권연구원 박사

정부의 신용보증이 강력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부동산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이날 박연우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상품실장은 “국내 MBS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부동산에 특화된 IB가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 모기지 자산은 부도율이 0.5%, LTV도 50% 수준으로 낮아 안전성이 높다. 아파트라는 표준형 모델이 많아 유동성도 높다. 이소아 기자

전광우 위원장 “산은 민영화 예정대로”

이달 국회에 법안 제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느냐”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산업은행 민영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정책 기능이 혼재해 있어 시장의 왜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영화의 틀을 마련하되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당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최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산은 민영화 관련법안을 제출기로 했다”며 “현재 산은 민영화 관련법안을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불안한 만큼 산은 민영화 관련법안 제출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산은 민영화는 대통령의 주요 추진과제인 데다 정부가 발표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 지분 매각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가며 조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도 금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이어서 산은 민영화는 정부의 추가 출자와는 별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형/노경목 기자 jh@hankyung.com

증권선물거래소 독점 막내리나

의원 22명 '복수 거래소 허용' 법안 추진

채권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주장도 커져

'증권선물거래소(KRX) 독점 시대 막 내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복수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래소 독점권 폐지에 따른 복수거래제 허용 복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거래소 이외 유사설립 금지 조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특히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내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번 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온 거래소 측도 내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감독·감시를 시시콜콜 받느니 차라리 그동안 독점체제에 따른 기득권을 일부 잃더라도 복수 거래소 체제로 가는 것이 독점에 따른 논란 해소와 향후 거래소 경쟁력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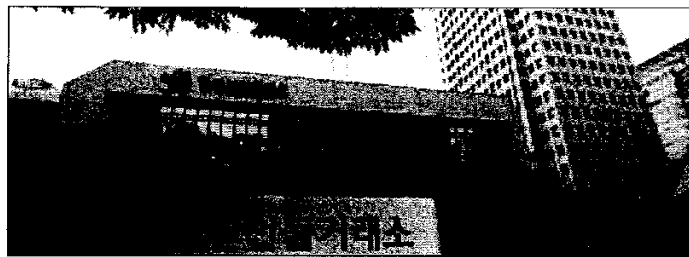
■복수거래소 체제 막 오른다

지난 3일 여야 의원 22명은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동화 상에는 현 증권선물거래소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거래소는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것보다 복수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키워 한국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의 창의성과 능동성이 향상되고 다른 나라 거래소와 인수합병(M&A), 상품개발 경쟁, 업무제휴 등의 성과도 기대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증권연구원 김준석 연구원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때 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은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래소도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이는 국가 금융시스템 전체



증권선물거래소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권유통시장 선진화도 본격화

복수거래소 체제는 비단 주식시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주식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 축인 채권시장 인프라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신종채권 관련 상품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맞는 채권유통시장 인프라 정비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선진국의 경우 채권 유통은 장외시장에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제도를 통해 경쟁매매 또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동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ATS는 거래소 아닌 자가 유가증권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집중시켜 매매체결을 중개하기 위한 기능을 구성·유지·제공하는 플랫폼을 말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유사설립 금지조항으로 다양한 채권거래 시스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유통시장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채권 장외시장에서 ATS제도를 도입해 국내의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채권상품의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및 관련업계는 이참에 다양한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 적용의 예외를 인정 또는 폐지하거나 채권장외에서의 매매방식을 상대매매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자인 '국채PD'(프라이머리딜러)의 국제지표종목의 거래소 거래의무조항도 아울러 폐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kik@news.com|김태경기자

데스크 칼럼

주식痛·펀드痛 넘기는 지혜



임 규 준
증권부장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배출은 우리에게도 벅찬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구촌의 많은 이들은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비슷한 감정을 한껏 느꼈을 성싶다. 그리고 이튿날, 최근 며칠째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시에 날카롭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들뜬 분위기에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라고 고함치는 듯하다.

주가가 예전처럼 춤춘다고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세를 확인하고 일확천금 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반 토막 난 펀드나 주식을 쥐고 망연자실해 하거나 더 버텨야 할지를 고민 중인 이들의 얘기에 난감할 때가 많다. 다만 분명한 것

은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극단적인 두 시각을 탐욕과 공포 탓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 일가견이 있다는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시장을 놓고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3평형 시세가 12억~13억원 이던 때이니 소위 상투 시절이다. 국내 최고 노른자위에 자리한 이 아파트를 지금 사야 하는지 진지가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사는 쪽'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호흡이 길어서 좀 더 예측이 쉽다는 부동산시장에서, 그것도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게 주업인 전문가들이었다. 이게 시장이다.

1987년 뉴욕 증시의 '블랙 먼데이'와 1990년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를 똑 집게처럼 경고한 마크 파버는 미국 주식을 팔고 중국 주식을 사라고 일찍부터 주장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거꾸로 된 전망인 상태다. 1970년대 조지 소로스과 함께 '퀀텀펀드'를 만들어 거적의 수익률을 올린 짐 로저스는 "최근 30년간 농사 지었다는 사람이 있었느냐. 농부도 부족하다"며 농산물을 비롯

한 광물 원유 등 상품투자를 강력히 추천했다. 하지만 정작 팔아야 한다고 부추겼던 미국 주식보다 원자재값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물며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야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출렁이는 장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 원래 호황-비불-침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시장경제의 속성이다.

남궁기서울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도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는 중이다. 그는 올해 초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담갔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경제감각도 키워줄 겸 펀드를 들어준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가기도 하다.

"올해 초 주식투자를 시작한 뒤로 주가가 줄곧 곤두박질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펀드도 많이 빠졌고요. 불확실할 때 가장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도 큼니다. 그래서 팔아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아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보직(사무처장) 업무에 필요해서 경제신문을 매일 최소 30분씩 꼼꼼하게 봅니다. 하지만 시세표는 건너뜀니다. TV도 앞부분은 일부러 피합니다. 그러나 맘이 편해지더군요."

그는 주식痛(痛)·펀드痛(痛)으로 병원을 찾은 이에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손절매할 것을 권하지만 잠시 잊고 지내는 방안을 함께 처방한다고 했다.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건실한 기업의 주가마저 계속 하락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모니터를 끄고 주식시세 들여다 보기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정신과 의사와 경영 전략 대가가 우울해지기 쉬운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에게 주는 팁이니 실천에 옮겨보면 어떨까.

그래도 궁금해서 못 견디었다면 시세를 들여다보고 시름에 잠겨 있을 시간에 전문가들이 향후 경제 회복 시기를 점칠 수 있는 지표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변수를 추려놓고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라면 그 변수를 경수수지, '빅10' 기업의 분기 실적, 금리, 미국 주택 가격, 중국의 경제성장률 정도로 정리하겠다.

과도한 공포와 위장된 낙관을 피하면서 내 책임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의 말에 결론까지 맡기기에는 내게 너무 중차대하고, 잘못돼 남의 탓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한국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37면

인사

- ◆KB투자증권>경영전략실장 辛東翰
- ◆현대증권○신인>파생상품본부 부분부장 이승희○전보>FICC파생운용부장 박천수

자산배분 원칙 꼭 지켜라

자산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배분이다. 60대 투자자라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5대5, 금융자산 중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 비중은 4대6 정도로 보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60대 초반에 들어선 나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 대 금융자산 비율이 아직 5대5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평균비율인 4대1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가 합계가 금융자산 시가 합계보다 많다. 주택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부동산 대 금융자산 비율이 5대5가 될 때까지는 신규 부동산 투자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자산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단기간에 쓸 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펀드로 보유하고 있다. 개별종목 주식투자는 하지 않는다. 주식에 직접 투자해 성공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기 직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펀드는 국내주식형 3개, 해외주식형 2개에 합계 50%, 채권형펀드와 CMA에 합계 50%로 나누어서 투자하고 있다. 월급이나 보너스로 수입이 생겼을 때는 이 비율로 나누어서 추가 투자한다. 아무리 주식시장 전망이 밝게 보일 때라도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나이, 재산상태, 가족 상황, 본인 투자성향,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에서 나이를 빼 비율만큼을 공격적인 펀드에, 나머지는 안정적인 펀드에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60대에 들어선 나는 주식형펀드 40%, 채권형펀드와 CMA를 합쳐서 60%가 적정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는 주식형펀드 비중을 50%로 유지할 생각이다. 약간 공격적인 비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내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고, 근로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 주식형펀드 비중을 30~40% 비중으로 낮출 계획이다.

펀드 배분비율은 6개월마다 점검을 한다. 6개월이 지난 후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 주식형 펀드 비중이 늘었을 때는 늘어난 만큼을 줄여 채권형·



강창희

CMA로 옮긴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형편에 비해 위험도가 너무 높은 배분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편에 맞는 비율로 돌려 놓기 위해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형펀드 비중을 줄인 후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형 비중이 줄었을 때는 그만큼 채권형·CMA 비중이 늘었을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비중 만큼을 팔아 주식형펀드로 옮긴다. 떨어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만이 아니다.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배분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비율로 돌려 놓기 위해 주식형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한 배분비율 조정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하는데 물론 예외는 있다. 9·11테러, 북핵사태, 최근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할 때는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비율을 조정한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이런 임시 조정을 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지수가 80~100포인트씩 크게 하락할 때마다 채권형·CMA를 팔아 줄어든 주식형펀드 비중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주가 급락 국면이 나타나면 같은 방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자산배분 원칙을 지켜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한없이 오를 것 같아서 주식형펀드를 팔기가 아깝고, 급락할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으로 인해 추가 매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변동은 움직임 그 자체가 투자자 판단을 왜곡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가격 변동의 마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락 국면에서나 상승 국면에서나 일관성 있게 분산투자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 He is...

△1947년 3월 21일생 △현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국제교류재단 기금운용자문위원 △굿모닝투자신탁운용 현대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등 역임.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이다

Market Today | 시장 읽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끔찍했던 한 달이 끝났다.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다가온다는 공포감이 외환시장과 증시를 폐허로 만들었던 10월 마지막 열흘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논란이 많았던 키코를 샀거나 달러나 엔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고통스러운 수준을 넘어섰다.

개인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주식형 펀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토막이 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주가연계증권(ELS)도 시장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다. 안전한 해외 투자를 위해 환헤지(위험회피)를 했던 투자자들도 엄청

난 청산비용에 할 말을 잊었다.

세계 증시의 반이 날아간 그라운드 제로에서 많은 투자상품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었지만 그중에서도 '기다릴 수 없는' 금융상품, 즉 특정 날짜에 청산되도록 돼 있는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입었다.

우리는 흔히 각종 리스크에 대해 얘기한다. 국가부도 리스크, 시장 리스크, 개별 기업의 부도 리스크와 거래 상대방 리스크까지 고려한다. 그러나 '시

간'이라는 가공할 만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옵션이나 선물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만기의 무서움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다. 자금이 잘 돌지 않을 때 다가오는 어음이나 수표 결제일은 저승사자가 오는 날이란 것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다.

자금 마감을 위해 동분서주해본 일이



이 상 진
신영투자신탁 부사장

별로 없는 일반 펀드 투자자들은 만기일이나 청산일이 이렇게 가혹한 변수가 될지 상상하지 못했다. 외환시장이 난리를 치던 10월 넷째 주 환 헤지를 한 투자자들의 경우 청산 날짜가 하루만 차이 나도 10%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며칠 사이에 20%까지 오르내렸다.

ELS도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900 밑으로 내려가던 날 대부분의 ELS 상품은 녹인(Knock-in)됐다. 전날까지 원금을 유지하던 상품이 하루 사이에 30~40%의 손실이 확정됐다는 얘기다. 그나마 만기일이 남아 있는 상품은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만기가 돌아온 불운의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당했다.

위낙 천재지변 같은 난리통에 발생한 예외적 경우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특정일'의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 투자란 내가 선택한 시간에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가장 큰 리스크다.

동 아 일 보

한국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26면

주식·채권 평가손, 3분기부터 손익서 제외 가능

기업들이 올 3분기부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 손실로 회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을 마련, 공포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월1일부터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또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돼 보유 자산의 시가평가 결과로 발생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자본항목(기타 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투자손실을 당기

손실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자본 감소로만 기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 만기 보유 증권(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채무증권)으로도 재분류할 수 있게 된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시가평가 결과를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주식에만 기재하면 된다.

회계기준원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내에 개정 내용을 확정하고 금융위가 이를 의결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어서 3분기 보고서에는 반영하기 어렵지만 기말 보고서에서는 7월1일 이후 손실부터 바뀐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투자자산을 많이 가진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의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형 기자 jh@hankyung.com

재벌, 지분 8%로 의결권 40% 행사

공정위 “소유구조 여전히 후진적”

재벌 총수 일가가 직접 소유한 의결권이 있는 계열사 지분은 8%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벌의 소유자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4월1일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12개 계열사의 소유자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8.04%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 지분율은 40.51%로 파악됐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자배 괴리도는 32.47%로 지난해에 비해 0.77%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집단별로 자본금 가중치를 부여해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평균의 결관승수는 7.39배로 지난해에 비해 0.34배 높아졌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 직접 소유지분의 7배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소유구조가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소유지분율이 6.02%, 의결지분율은 38.57%였다. 이들의 소유지

● 주요 기업 의결권 승수

(단위:배)			
삼성	8.09	금호아시아나	7.06
현대자동차	5.60	한진	4.74
에스케이	17.05	한화	12.26
엘지	6.99	두산	8.55
롯데	4.39	STX	7.81
지에스	2.76	신세계	2.35
현대중	5.68	씨제이	3.18

표의결권 승수(대주주의 실제 지분 대의 의결권)가 높을수록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임

배 괴리도는 32.55%로 1년 전에 비해 1.19%포인트 상승했고 의결관승수도 8.06배로 0.52배 높아졌다.

기업별로 보면 의결관승수는 SK가 17.05배로 가장 높았고 동양(14.83배), 한화(12.26배), 두산(8.55배), 삼성(8.09배), STX(7.81배), 금호아시아나(7.06배) 등도 7배 이상이었다. 이에 반해 KCC(1.08배), 효성(1.93배), 한진중공업(2.08배), 대한전선(2.32배), 동국제강(2.27배), 신세계(2.35배), LS(2.56배) 등은 의결관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에서 56개의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금융회사가 68개 계열사에 총 1조 5,148억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배기자 jib@sed.co.kr

통화스와프 체결했는데 환율 왜 오르나

외국인 주식·채권 매도 지속 11월에만 1조5000억 달해

1300원 전후로 변동 클듯

환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요즘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오른 1331원에 거래를 마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처음으로 1300원대에 진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약발이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주요인
요즘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같은 이머징마켓(신흥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본국으로 회수하기 위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41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6일에도 3000억원 이상을 내다팔았다. 11월들어 순매도 규모는 1조1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주식을 더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다. 현재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중 외국인 보유비중은 29%, 금액기준으로 176조원가량에 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증시는 다른 신흥국 증시와 달리 펀드나 연기금 등 주식 매수세력이 풍부해 환금성이 좋다”며 “외국인들 입장에선 돈을 빼가기 좋은 구조”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발을 빼고 있다. 지난달 6조4000억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도한 데 이어 11월 들어서도 4000억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45조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지금 이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들의 자금 회수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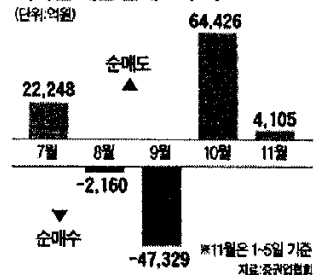
최근 통화스와프(CRS) 금리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에 체결되는 등 외화자금난이 풀리지 않고 있는 점도 환율 불안 요인이다. CRS 금리는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원화를 빌리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다. 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화를 빌리는 쪽에서 이자를 내는

커녕 오히려 이자를 얻어 받을 정도로 달러가 귀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스와프시장이 곧바로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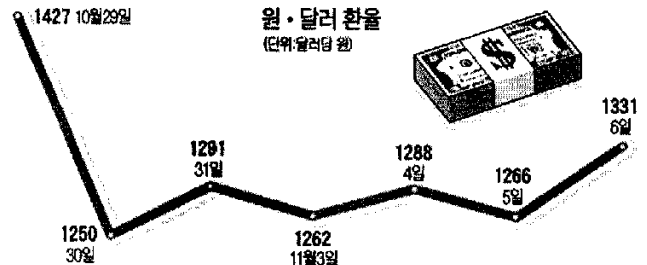
◆환율 전망 힘들어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을 전망하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직후만 해도 환율이 금방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두현 외환은행 차장은 “요즘 환율은 전날 뉴욕증시에 좌우될 때가 많다”며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외국인 매도

외국인 채권 순매도 추이



원·달러 환율
(단위: 달러당 원)



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데다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바락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이 ‘강한 달러’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달러당 1300원 안팎에서 변동폭이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오바마의 당선에서 비롯된 ‘오바마 헬리’가 하루짜라 반짝효과에 그치고 미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외환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주용석/유승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韓日 통화스와프 확대 속도낸다

강만수 장관 - 日총리특사 양국협력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파견한 국제금융·경제 특사를 면담하고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총리 특사로는 교텐 도요오 일본 국제통화연구소(IIMA) 이사장(전 대장성 국제업무차관)과 노가미 요시지 전 외무성

차관이 파견됐다.

교텐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지역 내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아소 총리의 생각을 전했다. 교텐 이사장은 이어 “한·중·일 3국간 금융부문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한·일 중앙은행 간에도 활발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아소 총리의 의견

도 전달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적극 협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와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행 40억달러에서 100억~3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억달러다.

강 장관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

황에서는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 조성을 빨리 추진하고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800억 달러로 합의된 CMI 다자화기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CMI 다자화 기금 확대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강 장관이 제안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형 기자 chihiro@hankyung.com

“韓·中·日·아세안 공동기금 800억弗 이상 돼야”

강만수 장관, 日총리 특사에 전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일과 아세안(ASEAN) 공동기금 규모를 8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강 장관은 6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파견한 교텐 도요오 일본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 노가미 요시지 전 외무성 차관 등과 수출입은행에서 만나 한·일 양국 간 금융 공조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 특사로 파견된 이들은 아소 다로 총리 친서를 강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 총리가 이례적으로 친서를 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일본 측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G20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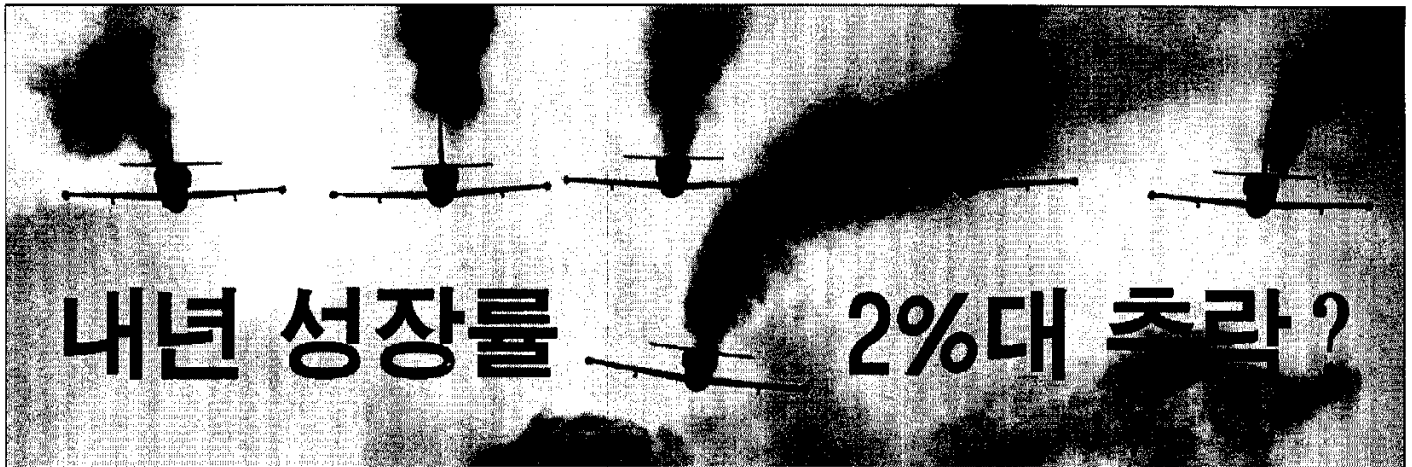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강 장관이 이미 한·중,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동기금 규모를 현재 논의되는 800억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확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교텐 특사는 “한·일 중앙은행 간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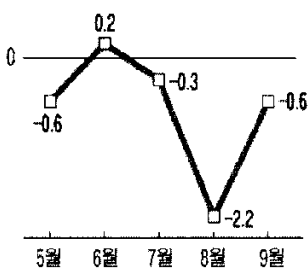
일본 특사들은 강 장관 외에도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따로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정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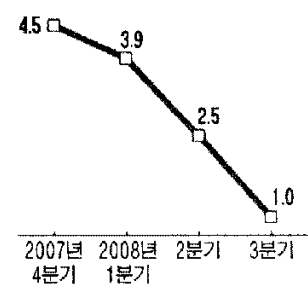


내년 성장률 2%대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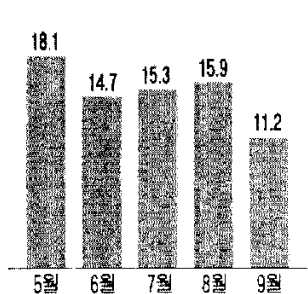
광공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월비)



소비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신규 취업자수 (단위:만명)



한국 경제의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 소비 고용 부자 등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경기 추가 하락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 가운데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 내년엔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내년 성장률 목표를 4%대로 발표했던 기획재정부는 6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물가 흐름은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에 4.5%(전년 동기 대비)였던 소비 증가율은 3분기에 1%까지 떨어졌다.

생산도 광공업용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는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한때 30만명에 가까웠던 신규 취업자 수도 지난 9월에는 11만여 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폭 떨어졌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증가율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평균 22.7%였던 수출증가율은 10월 들어 10%로 크게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도 지난 9월까지 8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기 침체 초기 단계며 내년에도 내수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 침체·수출 둔화·물가 안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실장은 "내수 침체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년에는 2%대 성장률에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 부문 디플레이션도 심각하다"며 "부동산 주식 등에서 이미 상당 부분 디플

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 은 경기 침체 초기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내년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 확대 등 경기종합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기대되는 측면"이라며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잘 먹힌다면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대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한국도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

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최근 한·미 통화스왑 등으로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고 국제수지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내수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불안했던 외환·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과 환율 등 영향으로 여행수지가 개선돼 10월 경상 흑자가 당초 예상(15억달러)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 조사에서 전 세계 52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마케팅조사 전문 기업인 넬슨컴퍼니가 올해 하반기 세계 주요국 소비자신뢰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올해 상반기 50에서 14 하락한 36으로 52위를 기록해 경제에 대한 소비자 염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 100점

재정부 "경기 추가하락 위험 더 커져"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52國中 '최하위'

내수 뚝뚝..소비 갈수록 '기진맥진'

재정부 10월 '그린북'

백화점 매출 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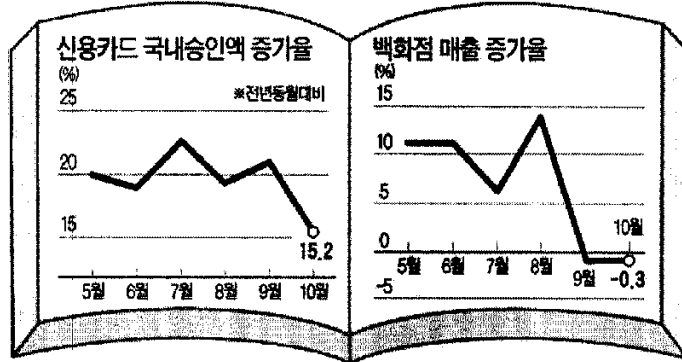
석유판매 11.5% 줄어

카드사용 증가율 둔화

내수 소비가 뚝뚝 얼어붙었다. 기획재정부가 10월 신용카드 승인액,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국산 자동차 및 휘발유 판매량 등 소비 관련 속보 지표들을 모아본 결과 소비 부진 추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단계를 넘어 고용 부진과 자산 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 등이 겹치면서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는 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10월 소비재 판매는 속보지표와 소비 심리 등을 감안할 때 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직 10월 소비재판매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11월28일 예상)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2%로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인 것에 이어 소비 부진의 골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ں 얘기다.

재정부가 집계한 속보지표에 따르면 10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해 전달(21%)에 비해 증가세가 5.8%포인트 둔화됐다. 소비자들끼리 점점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늘면



서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안팎의 신장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신장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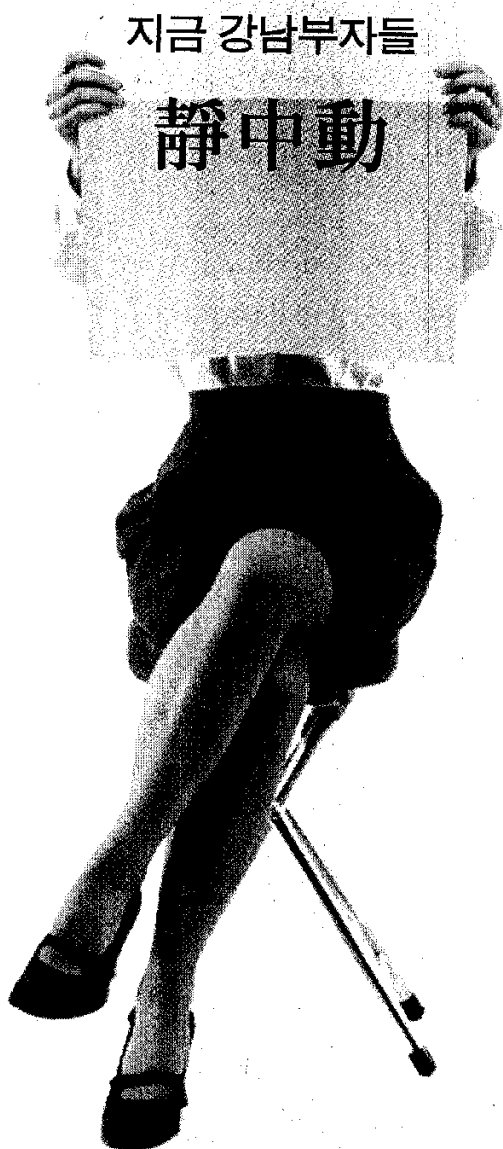
백화점 매출도 전달(-0.3%)에 이어 또다시 뒷걸음질(-0.3%)쳤고, 국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자동차업체 파업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0.1%로 역신장을 면치 못했다. 휘발유 판매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1.5%로 전달(-0.7%)보다 매출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다만 할인점은 중저가 상품 위주로 소비 패턴을 바꾼 고객 덕분에 매출이 3.2% 늘었다.

재정부는 그린북에서 소비 침체의 원인을 "고용 악화와 자산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 증가가 부진"한 데서 찾았다. 지난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11만2000명에 그쳐 10만명 선도 위협한 상황이다.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 가계

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소비 위축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소비 부진 속에 기업 투자도 얼어붙고 있어 내수 부문의 경기 하강 충격이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3분기 설비투자(GDP 속보치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에 그친 데 이어 10월에도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흐름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단순히 심리적 위축으로 지갑을 닫는 단계를 넘어 지갑 속에 쓸 돈이 점점 고갈돼 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소득층까지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태여서 당분간 소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서울 강남 부자들 분위기는 어떨까.

거액 자산가들을 많이 접하는 강남 지역 은행·증권사 PB(프라이빗뱅크)들은 고객들이 이미 손실이 난 펀드 등은 장기 보유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지수 상승에 따른 환매 문의보다는 향후 장을 뽐는 질문들이 많다는 것.

장정옥 청담에비뉴하나은행 지점장은 "펀드는 이미 장기보유로 돌아서서 사실상 수익률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고객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손실폭이 큰 상태여서 일시적인 반등에도 환매를 할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새롭게 신규 투자에 나서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고규현 삼성증권 FN갤러리아지점 과장은 "코스피가 1000 아래로 하락한 뒤로는 자산가 투자행태에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난 펀드 장기보유 일부선 개별종목 투자

주가가 빠져 봤자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신규투자자에 나서는 것은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개별 종목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 펀드보다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간접투자자에 나서는 고객들은 사모 주가연계증권(ELS)을 선호하고 있다. 급락 후 추가적인 하락 위험은 크지 않으면서도 연 3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PB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같은 투자자는 소수에 머물러 있고 대다수는 현금을 모으는 중이다. 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이 서면 투자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운목 대우증권 도곡자산관리센터장은 "일부 고객들을 중심으로 펀드에 추가로 자금을 넣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은 관망하며 현금을 모으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욱 기자

경기침체기 큰 돈 벌려면

과거에서 배우는 투자전략

한국 경제는 최근 10년 사이에만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카드채 사태 등 세 차례 성장을 둔화기를 겪었다. 경기 전반이 가라앉으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큰돈을 벌었다는 투자자들도 많다.

과연 경기 침체기에 가장 큰 수익률을 안

겨왔던 투자처는 어디였을까. 과거 경기 침체기와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현 금융위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향후 투자대상을 고르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손실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투자자라면 '이번엔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 짧게 보면 채권, 길게는 역시 주식

통상 경기 침체(Recession)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는 통념일 뿐이다. 경기사이클을 발표하는 미국 사설연구소인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조차 경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진 않는다. 매일경제신문은 삼성증권이 채택한 기준에 따르면 분기 대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기를 경기 침체기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4분기~1998년 2분기와 IT버블이 붕괴된 2000년

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외환위기 시기에 채권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금리와 관계가 있다. 당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크게 뛰었고, 정부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유지했다.

◆ 위기에 강했던 부동산, 과연 지금도?

흥미로운 점은 2000년 IT버블 붕괴 때와 2003년 카드채 사태 시기에 부동산(주택) 수익 수준이 가장 뛰어났다는 사실이다. 부동산가격지수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0에서 110으로 뛰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도 2.0% 상승했다.

실제 한국 부동산은 90~93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조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성장률이 꺾였다고는 하나 2000~2007년 사실상 부동산 버블은 계속 진행됐고 두 차례 침체기에도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다.

심지어 IMF 때에도 부동산 가치는 일시적으로 18~20% 하락했으나 99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탔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00년 이후 경기 침체기 당시에 금리가 3%까지 내려간 상태여서 대출이 용이했으며 SK글로벌 등 카드부실이 부각되면서 채권에 대한 리스크도 컸던 반면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김 팀장은 "지금은 자산버블이 꺼지는 국면인데 주가는 이미 상당부분 빠졌고 채권도 이미 국채와 은행·회사채 간 스프레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라며 "반면 부동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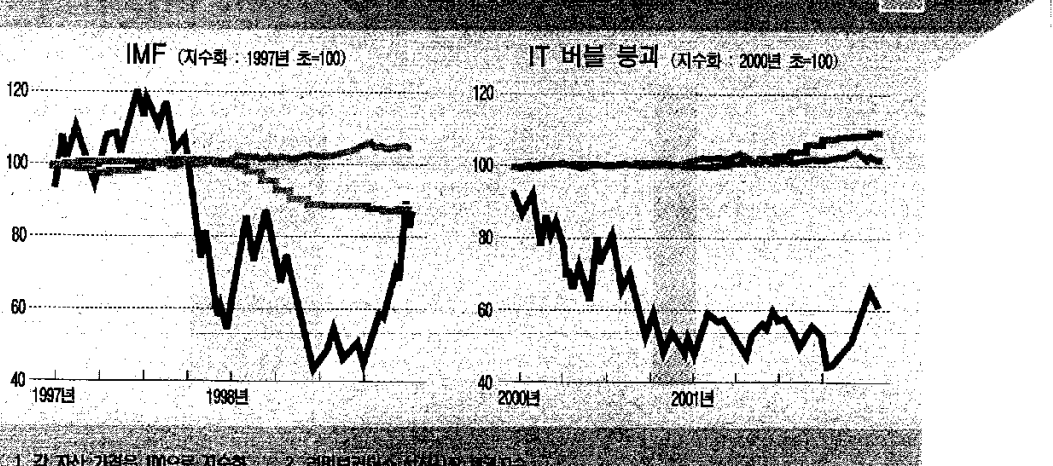
또한 부동산 하락 현상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가 많고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간에 괴리가 크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점 등은 향후 부동산 자산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염려를 뒷받침해 주는 요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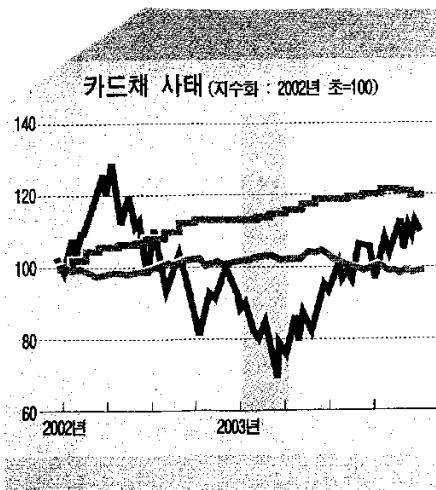
성진경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빠지고 있으며 채무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각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수요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신용위기가 부동산 버블과 맞물려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안정된다 해도 예전 만큼 상승세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경기 침체 자산별 수익률 비교



1. 각 자산 가격은 100으로 지수화 2. 리먼브러더스 애널리스트 채권지수



환란때 채권수익률 가장 높아 IT버블·카드채사태때 부동산 주식은 장기투자해야 큰 수익

4분기, 카드채 사태가 터진 2003년 1분기가 최근에 나타난 경기 침체기였다.

이들 기간에 주식과 채권,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주식의 대표적 지수인 코스피, 주택시장의 대표적 지표인 국민은행 부동산지수, 글로벌 채권시장의 지표인 리먼브러더스 채권지수 등을 구해봤다.

지수 분석 결과 전 분기 대비 GDP성장률이 -7.8%까지 떨어졌던 외환위기 때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채권가격지수는 97년 초 100에서 98년 말 105.2로 오른 반면 주식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86으로 14% 하락했다.

주택가격지수 역시 88.4로 떨어졌다. 특히 주식은 GDP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직후까지도 반등폭이 적어 침체기간만 보면 수익률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경기가 바닥을 찍기 전에 주식에 투자해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수익률이 크게 급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진경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경기 저점 3~6개월 전부터 수익률을 따진다면 주식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며 "내년 1~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 시장에 진입해 장기로 가져간다면 상

이머징마켓 투자 향후 6개월은 신중해야

대담=전병준 경제부장

“미국 경기 침체가 최소한 6개월은 더 가겠지만 한국은 금융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52)이 바라본 글로벌 금융위기 현주소다. 다이먼 회장은 6일 서울을 방문해 매일경제신문과 대담을 하고 “현재 어떤 나라, 어떤 기업도 금융위기에 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지만 각국 정부가 공조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사업 확장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월가 대형 금융기업들이 쓰러져나갔다. 하지만 JP모건은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다. 비결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란 것을 말해두고 싶다. 우리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았다. 하지만 현 경영진이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우리는 이미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처했다. 유동화 상품 리스크를 잘 분석해 미리 대처할 수 있었다.

(JP모건은 서브프라임 사태(2007년 8월)가 터지기 전인 2006년 10월부터 서브프라임 관련 유동화 상품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다이먼 회장이 발빠르게 위험 관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시 채권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던 JP모건은 2007년 6월 순위가 6위까지 미끄러졌지만 결국 위기에서 JP모건을 구해낼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이머징마켓에서 많은 수익을 거뒀던 대형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요즘은 이머징마켓에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JP모건도 2007년 수익 중 4분의 1 이상이 이머징마켓에서 나왔는데 향후 이머징마켓 성장 둔화에 따른 악영향을 받지 않겠나.

▶물론이다. 우리도 경기 둔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부문에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커머셜뱅크 부문도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머징마켓은 다르다. 이머징마켓 미래는 여전히 밝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만 향후 6개월 간은 투자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 대공황 이후 최악인 이번 신용위기를 버텨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은 몰라도 2010년에는 강한 회복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JP모건 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가. 한국 JP모건 전략 방향은.

▶그렇다. 아·태 지역 전략은 이번 금융위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태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다.

장기적인 투자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JP모건은 1967년부터 한국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글로벌 커머셜뱅크, 자산운용 사업 등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국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한국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 미래는 밝다. 내가 한국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한국이 다른 이머징마켓과 달리 금이나 석유 등 원

아태지역은 장기적 투자처

위기前과 달라진 것 없어

2010년엔 강한 회복 기대

한국은 늘 개혁하며 전진

조선·반도체 다 잘하는 나라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

자재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교육수준도 높지 않으나.

한국 경제 발전에 좋은 신호가 되는 것은 바로 ‘개혁’이다. 한국에는 늘 개혁이 따라다닌다. 과거에 잘못된 게 있으면 늘 고치면서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간다.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은 그런 부류가 아니다.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처럼 조선, 반도체, 가전 등을 골고루 잘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글로벌 공조 체제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 한 달 반 동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세계 각국 정부가 공조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본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번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최근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공적자금을 받을 정도로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최근 미국 재무부에서 250억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맞다. 물론 현금인 필요한 지경은 아니었

지만 우리도 재무부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 상황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JP모건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단이었다.

우리도 지난주에 250억달러를 송금받았다. 아직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모기지 금융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따라다닌다.

▶요즘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럴 해저드는 왜 일을 망쳐 놓았느냐고 타박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다. 전 세계가 과거에 겪어 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연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친구 하나가 강가에서 술을 마시다 강에 빠졌다고 치자.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겠나. 그 상황에서 ‘만약 내가 그를 구해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라며 친구를 죽게 놔뒀겠느냐는 말이다.

음주 후 강에서 수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 일단 친구를 강에서 구해낸 후 구급차 안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한예경 기자 정리·사진/김성중 기자





경제부터 챙긴다

이르면 오늘 재무장관 발표...GM, 오바마에 긴급지원 요청

오바마 시대 A2·3·4·5·6·7·11·16·21·39면

【뉴욕 워싱턴 특파원·서울 김민구 기자】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승리의 기쁨은 사치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 첫날인 5일(현지시간) 곧바로 정권인수팀과 백악관 인선에 착수하는 등 내년 1월 20일부터 미국을 이끌어갈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등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날 정권인수팀을 가동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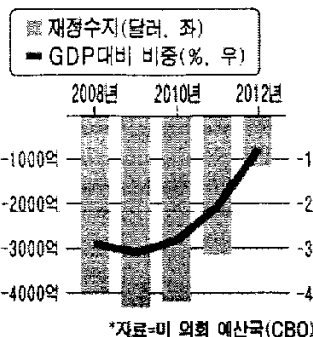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르면 6일 경제위기 극복의 조타수 구실을 맡을 차기 재무장관을 발표한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한편 판매 부진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 자동차업계도 오바마에게 지원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제너럴모터스(GM)는 미국 자동차업계를 대표해 '총대'를 메고 오바마에게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다급한 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GM 북미시장 담당 트로이 클라크 사장은 오바마 당선 후 자동차 '빅3' 경영진으로서의 처음으로 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미국 재정수지 추이



"앞으로 100일에 업계 사황이 겹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열린 전미자동차부품업협회 회동에 참석해 "북미시장 자동차 수요가 거의 와해될 지경인 상황에서 업계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GM과 크라이슬러 간 합병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로저 올트먼 전 재무차관보도 5일 블룸버그뉴스에 "GM이 와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다.

GM 협상을 자문하는 컨설팅사 에버코어를 창업한 올트먼은 1979년 재무차관보로 있을 당시 크라이슬러 구제를 담당한 바 있다.

올트먼은 "GM 혹은 빅3 모두가 와해되면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면서 완성차는 물론 부품업체 등으로까지 충격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센터 포 오토모티브 리서치'가 5일 공개한 보고서는 빅3 가운데 한 곳 또는 그 이상이 무너지면 최고 2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고객 모은 'CEO 오바마'



'CEO 오바마'의 7가지 성공요건

1. 결정을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2. 절대 비밀이 새지 않는 단단한 팀워크
3. 철저히 계획대로 움직인다
4. 작은 승리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
5. '오바마 브랜드'의 성공적 관리
6. 온라인 디지털 홍보의 극대화
7.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

자료: 미국 경제전문 방송 MSNBC 제시

MBA도 탐내는 '오바마 7대 성공 전략'

"오바마는 브랜드가 원하는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새롭고(new), 차별화(different)했고, 매력적(attractive)이다." (글로벌 광고회사 DDB월드의 키스 라인하트·Reinhard 회장)

비록 오바마(Obama)의 성공을 놓고 경영학 연구자들이 바빠졌다. 그의 대선 승리는 MBA(경영학 석사) 강좌에 오를 만한 케이스 스터디 감이라고 경영학계에선 입을 모은다. 그는 새로운 고객층을 창출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경쟁이 없는 신규시장)을 추구했으며, 치밀하게 계산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해 미국 대선 사상 최대 고객(6325만 표)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미국 경영전문 월간지 '패스트컴퍼니(Fastcompany)'는 "온라인으로 지지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Page)와 비슷하고, 새로운 정치 수요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쉘츠(Schultz)를 섞어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어떻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을까. 패스트컴퍼니와 경제전문 방송 'MSNBC' 등 미국 언론의 분석을 종합해 'CEO 오바마'의 전략을 들여다봤다.

① 블루오션을 개척한다

지난 1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첫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당시까지 미국 언론의 대세론은 힐러리 클린턴에 몰려 있었다. 기존 방식으론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오바마는 30대 이하 젊은 당원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표당일 청바지를 입고 젊은이들과 농구를 하기도 했다. 결과는? 젊은 층의 참가는 이전 선거보다 4배가 늘었고, 코커스에 참가한 당원의 20%가 30대 이하였다. 힐러리 대세론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다.

② 고객의 친구가 되라

삼성전자 제품을 산 뒤, 이견전 전 회장으로 부터 감사 메일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오바마는 이 점을 노렸다. 오바마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에게 보낸 모금(募金) 권유 이메일은 '오바마@' 혹은 부인인

'미셸 오바마@'로 시작됐다. '선거대책본부@'나 '민주당@'으로 보냈으면 지워졌을 메일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읽도록 만든 것이다.

③ 철저한 계획과 단단한 팀워크

오바마는 철저하게 2007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세운 계획대로 움직였다. MSNBC는 "이라크 철군 시한에 대한 언급을 빼고는 이때 세워진 계획에서 거

새로운 고객층 창조하며

경쟁없는 블루오션 개척...

브랜드도 치밀하게 계산

의 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벌써 그의 참모들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할 일에 대한 계획 세우기에 들어갔다.

그의 팀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바이든 부통령 지명도 발표 전까지 어떤 언론도 미리 보도하지 못했다.

④ 핵심 '고객'의 충성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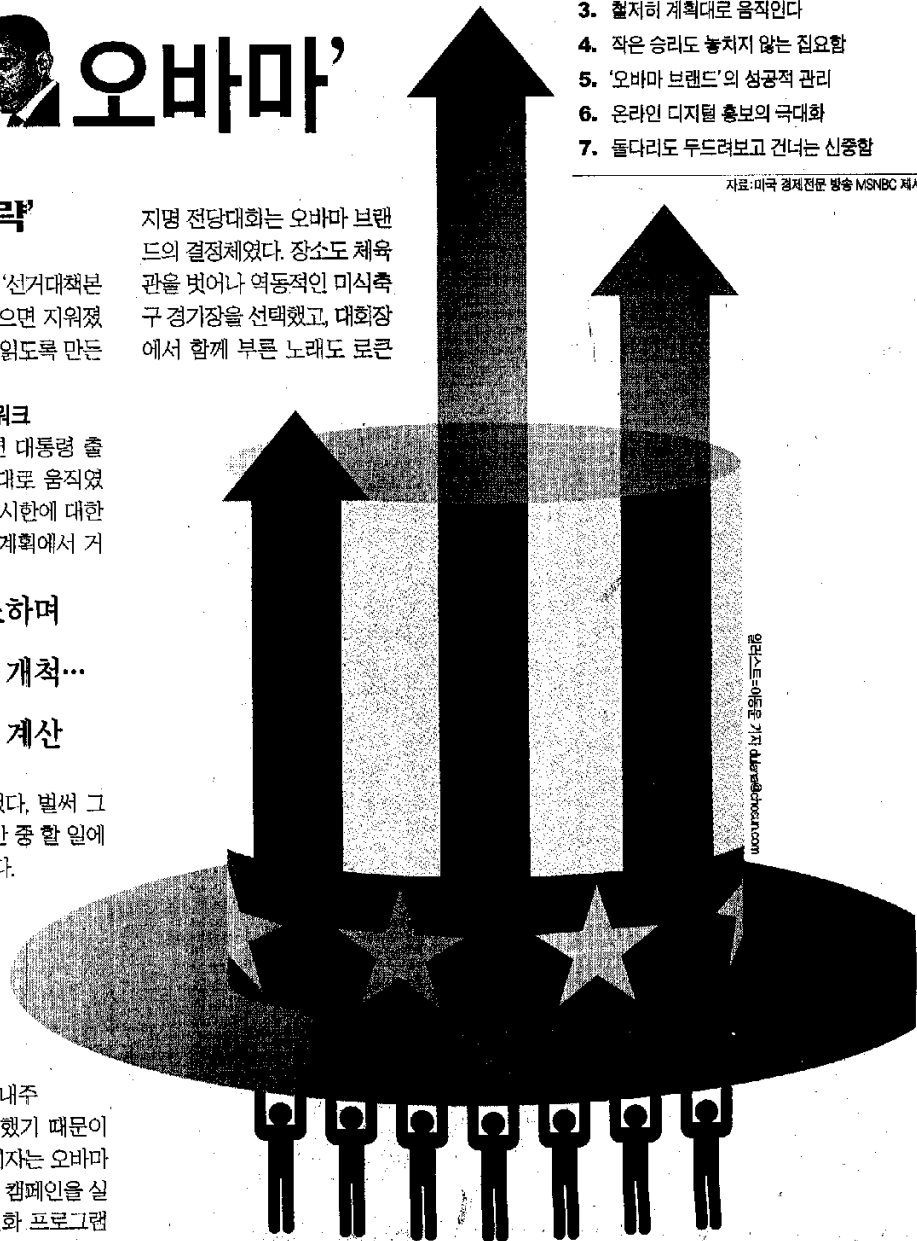
오바마 성공은 입 소문을 내주는 '핵심고객'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지지자는 오바마의 유세 일정과 지역 내 선거 캠페인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했다. 힐러리나 매케인 등 다른 후보들의 온라인 콘텐츠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인데 반해 오바마는 지지자들이 만들어 올렸다.

⑤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오바마의 대선 로고는 디자인의 승리다. 다른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강조한 밋밋한 로고를 사용한 반면, 오바마는 자신 이름의 첫 글자인 'O'를 태양으로 형상화하고 푸른색 배경을 넣어 미래로 달려가는 이미지를 상징화했다. 그는 이 로고로 변화와 희망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극대화시켰다.

지난 8월 오바마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 전당대회는 오바마 브랜드의 결정체였다. 장소도 체육관을 벗어나 역동적인 미식축구 경기장을 선택했고, 대회장에서 함께 부른 노래도 로큰



롤인 '더 라이징(The Rising·떠오름)'이 있다.

⑥ 일단 결정하면 밀고 나가라

부통령 후보를 상대적으로 무명인 바이든으로 결정한 것은 오바마가 가장 안전한 선택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경륜이 정치 신인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고, 현실적으로는 공화당 우세지역인 펜실베이니아 태생인 바이든의 영입을 통해 선거의 반전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페일린 열풍이 불었지만 오바마는 당초 선택을 고수했다.

오바마의 선거참모인 데이비드 플루페(Plouffe)는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10가지의 원칙을 세운 뒤 완벽한 결과를 찾는 것보다 낫다"며 "이것이 오바마 방식(Obama way)"이라고 말했다.

⑦ 집요해져라

네브래스카주는 선거인단이 5명밖에 없지만, 여론 조사에서 열세지역으로 나오자 마지막까지 유세를 위해 찾아갔다. 결국 5명의 선거인단은 매케인에게 돌아갔지만 끝까지 포기 않는 오바마의 집요함이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였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달라지는 미국
달라지는 세계 ②



힘의 이동...진보성향 싱크탱크 뜬다

【로스앤젤레스 김경도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 정치와 사회·경제를 이끌어갈 인재풀도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정부 8

년 동안 미국을 주도한 인사들이 퇴조하고 그 자리에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재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

으로 민주당을 지원해온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연구소가 주목받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내 대표적인 실무형 싱크탱크다.

브루킹스 수전 라이스·제프 베이더·제이슨 퍼먼등 오바마행정부 인재풀 역할

브루킹스는 대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 민주당 정부의 '변화' 어젠더를 짜왔다. 이를 반영하듯 브루킹스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44대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10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미리 제시했다.

브루킹스가 제시하는 신정부 어젠더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유연한 '조정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데 맞춰지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금융 규범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호무역 옹호 움직임에도 쐈기를 박고 있다. 예컨대 자유무역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무역체제를 옹호하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브루킹스는 또 기후 변화 이슈에 미국이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는 점과 대외원조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루킹스는 1927년 설립된 이래 그동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로 정부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을 수행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미국 정부 정책 입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연구소로 꼽힌다.

93년 3월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백악관 대변인 조지 스테퍼노폴러스와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나 특 던진 한마디 말은 브루킹스가 얼마나 미국 정치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과 대변인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에 대해 답변하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브루

킹스를 비롯한 싱크탱크에서 올라온 정보를 듣고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인재풀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브루킹스 출신 가운데 우선 오바마 외교안보정책 참모인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아프리카담당 차관보와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며 중국팀장을 겸한 제프 베이더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핵문제 전문가인 리처드 C 부시 동북아정책연구실장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흑인 여성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 대비시켜 또 다른 라이스로 불리는 라이스 전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나 유엔 대표부 대사 등의 자리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이스가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

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브루킹스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임연구원인 제이슨 퍼먼은 조세, 보건의료, 사회보장 정책 전문가로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이코노미스트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풍부한 현장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중용이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무역정책 참모로 일하고 있는 부소장 라엘 브레이너드 거취도 관심거리다. 클린턴 정부에서 국가 경제위원회 부소장을 역임했던 그녀는 오바마 참모 가운데 보호무역 색채가 가장 강한 인물이다. 그녀는 선거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열린 한 포럼에서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협정 위반시 WTO 제소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 브루킹스연구소 전·현직 주요 인물

외교안보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아프리카 차관보
-오바마 외교안보 정책 참모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물망



제프 베이더

동아시아 정책총괄(중국팀장)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 연구실장
(북핵문제 전문가)



이보 달더

-전 백악관 NSC
유럽담당실장

경제



제이슨 퍼먼

선임연구원
-조세·보건의료·사회보장전문
물류전문 정부 자문



라엘 브레이너드

부소장
-오바마 무역정책 참모

▶ 브루킹스 연구소는



구 분	내 용
설립연도	1927년
설립자	세인트루이스 기업가 로버트 S 브루킹스(1850~1952)
소재지	미국 워싱턴 DC
성 향	-민주당 싱크탱크, 진보적 입장 -자유주의 이념의 본거지, 비영리 민간기구
기 능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정부 및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미 정부정책 입안에 영향(미 3대 연구소 중 하나)

▶ 브루킹스가 밝힌 오바마 당선자 10대 과제

구 분	분 야	메시지
글로벌 이슈	국제금융체제	국제공조 강화, 새로운 규범 정립
	녹색전력	기후변화 이슈에 능동 대처
	스마트 파워	대외원조 통합
	국제무역체제	자유주의와 WTO 다자무역체제 옹호
6대 지역 전략	중국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러시아	교류 확대, 내부 변화 유도
	인도	세계경제 편입지원, 협력분야 발굴
	남미	관계 회복
	아프리카	원조규모 확대, 원조의 질 향상
	중동	신세대 대상 협력의제 발굴

CAP

<미국진보센터>

‘진보계 헤리티지재단’ 5년새 급속성장
존 포데스타 소장 정권 인수팀장 내정

【로스앤젤레스 김경도 특파원】 진보 성향인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싱크탱크가 미국진보센터(CAP·Center for American Progress)다.

CAP는 2003년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AEI) 등에 대한 대안 싱크탱크로 설립됐다. 역시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을 지냈던 존 포데스타가 조지 소로스, 허버트와 매리언 샌들러 같은 미국 대표 부자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그는 지금도 CAP 소장과 최고경영자(CEO)직을 맡고 있다.

스스로를 ‘진보판 헤리티지재단’이라고 규정한다. 조직 규모도 큰 편이고 활동도 공격적이다. CAP는 현재 한 해 예산만 2000만달러(2008년 기준)고, 연구인력 1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세워진 지 5년 만에 정상급 싱크탱크로 급성장했다.

대표적 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처럼 워싱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목표란 것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연구 이슈 개발에도 적극적이어서 각종 언론 인용 빈도가 전 미국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이라는 평가와 함께 활발하게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에 충실하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당선 이후 벌써부터 CAP는 오바마 정부에서 브루킹스연구소와 더불어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 맞설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CAP는 대선 직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담은 ‘미국의 변화-진보적인 청사진’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오바마가 이를 모두 정책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CAP에 소속된 핵심 인사들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약이 벌써 주목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름 아닌 CAP의 존 포데스타이기 때문이다.

CAP의 흑인 여성 부소장인 카산드라 버츠도 오바마 정권 인수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버츠는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서 오바마와 절친한 사이였고 경선 당시 오바마의 국내 정책을 총괄했다.

특히 CAP의 선임연구원인 톰 대슬 전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드워즈 케네디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인 흑인 여성 멜로디 반즈(오바마 캠프 국내 정책 담당)를 비롯해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진 스틸링(경제 담당)이 CAP 출신이다.

또한 데니스 맥노더(안보 담당), 로런스 코브(이라크 정책 담당)도 CAP에 소속돼 있는 인사로 오바마 정권 출범과 함께 핵심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전문가인 워테이셰이라와 함께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부인인 엘리자베스 에드워즈도 최근 CAP에 가세했다.

□오바마에 대한 각국 반응

세계 각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기대감이 높다. 일방주의를 고집한 부시 행정부가 종언을 고하고 ‘변화의 지도자’ 버락 오바마가 등장함에 따라 지난 8년간 폐격거렸던 대서양 양안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숨겨진 불만’을 점차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은 대화 상대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기후 변화 대응, 인권 문제 등 핵심적 이슈에서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프간전쟁과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일관되게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 아파카에다와 탈레반이 기승을 부리는 아프간에 배치함으로써

유럽 기후변화협약 협력 기대
중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촉각

써 ‘잊혀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공언하면서 유럽 우방들에 인적·물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럽과 미국 간 외교·안보 분야 관계 회복에 아프간전쟁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도 유럽이 오바마 행정부에 크게 기대하는 이슈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바마 당선이 확정된 직후 유럽 지도자들이 축하인사를 건네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몇몇 사안을 꼽으면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빠지지 않았던 점에서 이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오바마 정권 출범에 대해 대미외교를 강화하자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위안화 환율 문제와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강조해온 오바마가 당선된 만큼 무역·통상 마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도 축하 담화를 통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과 힘을 합쳐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제 경제, 테러, 지구환경 등 국제사회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구 기자

오바마, 15일 G20회담서 국제무대 데뷔

금융위기 극복 리더십 보여줄지 주목

세계 금융위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은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첫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담은 위기에 빠진 지구촌 경제를 구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유럽과 중국 등 적지 않은 국가가 오바마 당선인의 보호주의 색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바마 당선인이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7개국(G7,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과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정상 가운데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이미 참석 의사를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등도 참석키로 했다.

이 밖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IBRD) 총재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데이비드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금융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공조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

서 오바마 당선인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선데이텔레그래프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가장 먼저 백악관에 초대받고 싶어하는 유럽 정상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했다.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일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일정 조정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美 ‘強달러’로 선회하나

오바마 경제브레인 달러강세 선호

“대규모 국제 소화 위해선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환율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5일 오바마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볼 때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1월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로서 향후 경제위기 해결에 막대한 재정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하려면 강달러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국제 발행을 해야 하는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면 강한 달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 4개월간 지속됐던 달러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템퍼스컨설팅의 자본시장담당 그레그 살바지오 수석 부사장은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미국이 강달러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부실 금융사를 위

한 구제금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 발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의 경제 브레인인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FRB) 의장이 모두 강달러 지지자들이라는 점도 강한 달러 정책이 예상되는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도 공화당 정부보다 민주당 정부에서 달러화는 더 강세를 보여왔다.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8년 동안 달러화 가치는 20.3%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는 공화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0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5% 급락했다가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들이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서 최근 4개월 동안 약 20% 뛴 상태다.

서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매일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02면

“美·日·유로존 내년 마이너스 성장”

IMF, 지난달 전망치에서 큰폭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 일본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로 수정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6일 보도했다.

IMF 세계경제 전망보고서(WEO) 개정판을 검토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일본과 유로존은 각각 -0.2%와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IMF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0.1%로, 일본과 유로존은 각각 0.5%와 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대폭 둔화된 2.2%로 예측됐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3.9%에서 지난달 3%로 수정

된 데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신중국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0월 예상치 6.1%보다 낮은 5.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 내년 성장률은 한 달 전 9.3%에서 8.5%로 하향 전망됐다.

앞서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가 내년 하반기에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추가적인 하강 압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립스키 부총재는 “세계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 정책당국자들은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재현 기자

양대 채권 보증업체 MBIA·암박 3분기 손실 예상치 상회

美 신용위기 불씨 안 꺼졌다

암박 신용등급 4단계 추락... MBIA도 조정될듯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 양대 채권 보증업체인 MBIA와 암박과 이년설이 예상보다 훨씬 심한 분기손실을 기록했다.

이 결과 암박의 신용등급이 4단계나 추락하는 등 미국 내 신용위기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MBIA의 올 3·4분기 순손실액이 총 8억 650만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실액 3.660만달러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업 손실액은 주당 2.22달러를 기록,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손실규모(주당 1.04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암박도 3·4분기 순손실이 24억 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 6,000만달러 손실)보다 손실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보유한 주식·채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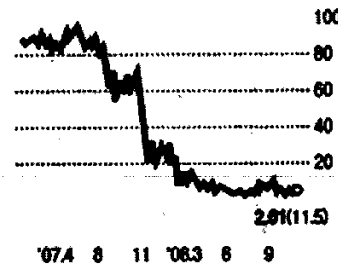
가치 변동을 제외한 손실액은 주당 7.81달러로 전문가들의 예상 손실규모(주당 1.09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손익 규모는 MBIA 9억 6,100만달러, 암박 31억달러 등 추가 손실에 대비한 비축금을 제외한 것이다. 실적 공개 이후 무디스는 암박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Baa1으로 4단계나 끌어내렸다.

마이클 캘론 암박 CEO는 "정부 구제금융자금이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움을 줄 수 있다"며 등급 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인 2007년 초 90억 달러 이상이었던 암박의 시가총액은 현재 9억 7,500만달러로 10분의1로 막났다.

MBIA 신용등급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모기지 상품이 많

암박 주가추이
(단위:달러)



아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짐 라이언 시카고 소재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는 "채권 보증업체에 대한 최대 관심거리는 신용등급"이라며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MBIA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조정한 지난 7월초 이후 지방채보증 계약을 멈췄다. 암박 역시 지난 3·4분기 동안 어떠한 신규 보증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의 마지막 희망은 정부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자금 중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다. 몇 때냐면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시의 애널리스트는 "정부 구제자금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들의 최후이자 최선의 희망"이라며 "현재로서는 양 사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윌리스 암박 CEO는 "문제는 지불능력이 아니라 유동성"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채권보증기관도 정부 구제금융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들어 MBIA·암박 등 총 7개의 채권 보증업체 중 5개 업체가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을 박탈당했다. 신용등급이 무너지자 지방채 가치는 대폭 하락했고 구입 은행들은 채권자산을 상각해야 했다. 이 같은 위기 국면 속에 양 업체 주가는 올들어 각각 52%, 92% 하락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中·러·EU ‘오바마 보호주의’ 견제구

“美시장 닫기보다는 해외서 사업기회 찾아야”

블룸버그, 한미 FTA 처리가 무역정책 가늠자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은 물론 세계 질서에 벌써부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은 당선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오바마 캠프에 자국산업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다국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 각국, 보호주의 회귀 견제
세계의 적지 않은 국가들은 내년 1월20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자유무역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또 미국 자동차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 우려를 낳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캐서린 애시턴 무역담당집행위원은 5일 블룸버그TV와의 회견에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가 어떤 일을 할지

확신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정부가 미국 시장을 닫기보다는 미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쪽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셀소 아모림 브라질 외무장관도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오바마 정권 출범 이전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협상의 세부원칙이 광범위하게 타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오바마 정부 출범에도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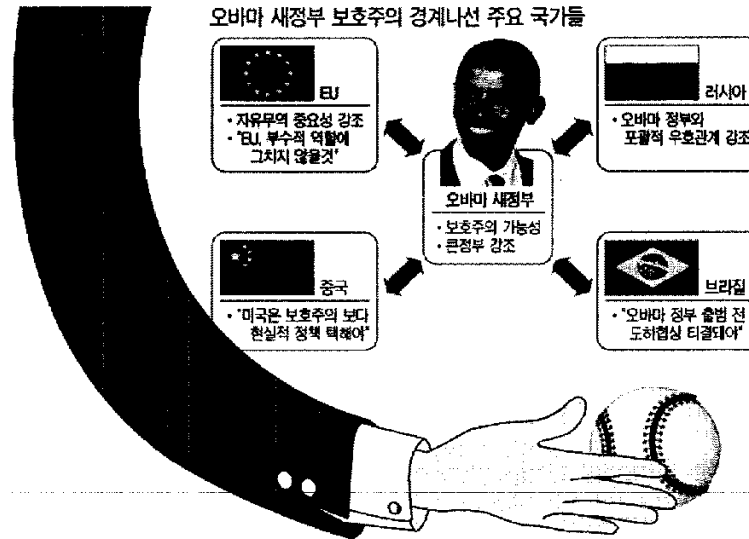
중국도 미국 측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소의 우신보 소장은 “금융위기로 미국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오바마 역시 강하게만 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미 의회에 승인이 계류돼 있는 세건의 FTA 가운데 특히 한·미 간 협정이 향후 오바마 정권의 대외 무역정책을 가늠케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자간 협력시대 기대
부시 정권의 외교·안보적 패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외교지도력을 추락시켰으며 오바마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져왔다. 따라서 향후 오바마 정부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 유럽과 일본 등 우방들과 보폭을 맞추고 동맹국은 물론 협력 가능한 국가들과 손잡는 다자주의적 세계 질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U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장관은

오바마 새정부 보호주의 경계나선 주요 국가들



“이제 세월은 변해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EU는 더 이상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오바마의 당선 이후 이뤄진 자신의 첫 국정 연설에서 “미국 새 정부가 러시아와 포괄적인 우호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며 미국과의 대립을 해소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응해 폴란드 인근에 신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라고 밝혀 강은 양면의 카드를 들어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오바마 당선인이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오바마의 당선을 축하하며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위한 청사진(뉴딜)이 필요하다”며 “오바마가 이끄는 새 정부가 유럽과 함께 이 청사진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규호 기자 daniel@hankyung.com

속도 내는 '중국판 뉴딜'

【베이징 최경선 특파원】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가 갈수록 고조되자 '중국판 뉴딜' 정책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104회 캔턴페어(광저우교역회)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염려를 한층 고조시켰다.

중국 언론들은 6일 "캔턴페어 수출 계약 금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올봄에 열린 103회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30~40%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57년부터 매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는 캔턴페어는 중국 수출 앞날을 가늠하는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교통운수부는 향후 3~5년간 교통·항만·수로 건설에 5조위안(972조원)을 새로 투자하는 '중국판 뉴딜정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최근 2조위안(약 389조원) 규모 철도 투자 계획을 승인한 것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경착륙 염려 갈수록 고조

제일재경일보는 6일 상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올가을 캔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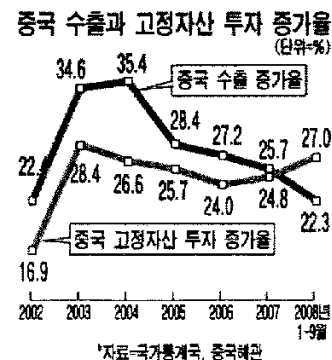
어에서 중국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EU)에서 주문·계약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수출 전진 기지인 광둥성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14.4%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올해 1~9월에는 성장률이 이미 10.4%로 폭 떨어졌고, 수출 증소기업 도산·감산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캔턴페어를 통해 확인된 수출 전망은 앞으로 중국 연안 수출지역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 증가율은 올해 1~9월만 해도 전년 대비 22.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마윈 도이체방크 경제학자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9.8%에서 내년에는 최저 6% 내외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윈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는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며 특히 수출 실적 증가율은 올해 11%에서 내년에



는 '제로' 증가율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CLSA도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환경 악화와 중국 내수경기 둔화를 감안할 때 중국이 내년에 8%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5%까지 낮아지고 내년에는 5.5%까지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항만 등에 972조원 투자

6일 차이내데일리는 애초 2006~2010년 도로·항만·수로 부문에 2조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던 교통운수부가 향후 3~5년 사이 5조위안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계획안을

교통·항만 등에 972조원 투자 40조원 규모 감세방안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경기 부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무원이 이 같은 교통운수부 투자 확대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10월 승인된 철도부 투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업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10만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중국판 뉴딜정책'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 주석이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로 내수 진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후이둥 선인원궈증권 수석경제학자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8.1%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8%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펼쳤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신식 중심 장웅원 거시경제저장도 "정부가 내년 9%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통화 양방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대 2000억 위안(약 40조원) 규모 부가가치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국무원 승인을 얻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英 1.5%p 사상최대 금리인하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자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6일 국제 공조로 제2차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영국중앙은행은 6일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3%로, 1.5%포인트 인하했다. 1.5%포인트는 영국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중 사상 최대폭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경제는 3분기에 마이너스 0.5% 성장을 기록했으며, 주택가격 폭락과 실업률 증가로 2010년까지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럽중앙은행도 6일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3.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유로화를 쓰는 유럽 15개국은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내셔널뱅크(SNB)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2%로 인하했으며, 체코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3.5%에서 2.75%로 0.75%포인트 내렸다.

한편,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5.0%에서 연 4.25%로 0.75%포인트 인하했던 우리나라도 7일 오전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현목 기자 seandh@chosun.com

매일경제

2008년 11월 07일 금요일
A11면

우크라이나·아이슬란드

IMF, 구제금융 승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와 아이슬란드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64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6일 보도했다. IMF는 구제금융이 지원되는 2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 체질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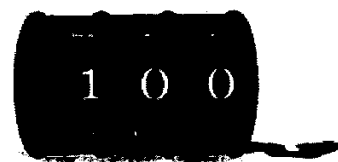
무엇보다 포르투갈 IMF 부총재는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구제금융 가운데 45억달러가 즉시 지원된다고 말했다. IMF는 구제금융이 우크라이나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화폐가치 추가 하락을 막으며 나아가 국가 부도 상황을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또 최악의 금융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에 대해 2년간 21억 달러를 지원하는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아이슬란드는 즉각 8억3300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구 기자

IEA “유가 조만간 100弗 넘을 것”



“하락은 일시적” ... 2030년엔 배럴당 200弗 전망

현재의 유가 하락은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다음주 발표할 보고서를 통해 “수급 불균형 탓에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값싼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석유회사들이 원유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하루 700만 배럴씩을 더 생산해야 한다”며 “현재의 원유 공급 및 소비 구조는 확실히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00만 배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로 이처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간 3,5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IEA는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평균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30년 불가상승분을 반영한 원유 가격 추정치를 지난해의 배럴당 108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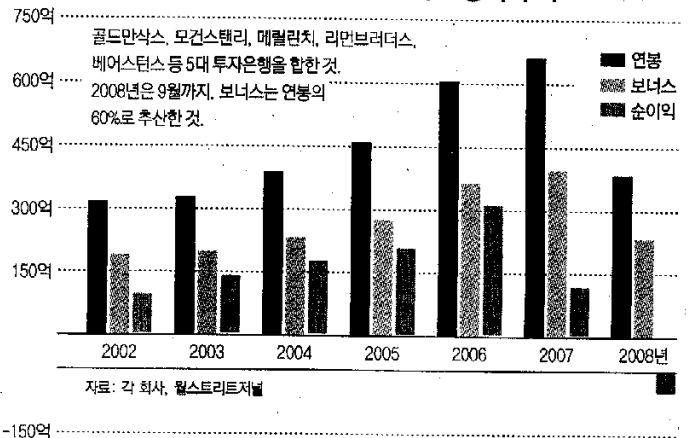
오래된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이 급감하면서 석유회사들이 새 유전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FT는 이 같은 추정이 현실화될 경우 석유 수입국들로부터 석유수출국기구(OPEC)로 2억달러 규모의 부(富)와 권력이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5일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하자 한 중개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월가 금융회사들이 연말에 '보너스 잔치'를 벌일 계획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월가 5대 투자은행의 연봉 및 보너스 총액 추이 (단위: 달러)



월가, 빗 젖어도 '보너스 잔치'는 계속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미국 월가에 연말 보너스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연말 '보너스 잔치'가 벌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월가 금융회사들이 올해에도 직원들에게 예정대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어서 쏘아붙여지고 있다. 베팅 끝에 선 월가를 국민 세금으로 살려냈더니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3곳 임직원에게 200억달러 풀 듯

"세금으로 살려냈더니..." 비판속 검찰 위법 경고

● 골드만삭스 등 3개 은행, 올해 보너스로 200억 달러 준비

월가 금융회사들은 통상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60%에 달하는 보너스를 매년 지급해 왔다. 그리고 보너스의 상당 부분은 연말에 지급된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텐스 등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연봉은 총 3120억 달러였다. 여기에 추가로 1870억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3개 투자은행은 올해 보너스 지급을 위해 200억 달러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가 심각한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말 보너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살로몬브러더스 회장을 지낸 굿프렌드&Co의 존 굿프렌드 사장은 "올해 월가가 보너스 지급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월가의 연말 보너스 지급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사화됐던 월가가 국민 세금을 보너스로 나눠 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가 금융회사들이 올해 경영실적과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밝히도록 금융당국의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총대 멘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

월가의 연말 보너스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이 나섰다.

쿠오모 검찰총장은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등 정부가 자본참여 계획을 밝힌 9개 대형 금융회사에 임직원 보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오모 총장은 올해 임직원의 보너스 책정 규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기로 한 이후 보너스 관련 자금 책정 변경사항과 함께 2006년과 2007년에 25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너스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영진의 업무 가치를 초과하는 보수에 대해선 뉴욕 주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부 월가 금융회사에서는 경영진이 자신들의 보너스는 줄이되 직원들의 보너스는 예정대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월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신들의 보너스는 큰 폭으로 삭감하고 대신 직원 보너스는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 정부로부터 59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스위스계 금융회사 UBS는 최근 파터 쿠리 회장 등 12명의 이사진이 올해 보너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시각

“대규모 추가부양책 가장 시급”



존 프라빈 수석 투자전략가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베룬 수석 이코노미스트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뉴욕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최악으로 내몰린 미국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침체된 경기를 자극할 수 있는 실탄규모는 1차 때의 1,680억달러보다 많은 2,000억~3,000억달러로 이들은 추산했다. 또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건 고소득층 증세 추진은 경기가 회복된 후로 연기되거나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제44대 대선을 계기로 월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 노믹스’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 대규모 경기부양 가장 시급-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바마 당선인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2차 경기부양대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꼽았다.

존 프라빈 프루덴셜 리얼티 수석 투자전략가는 “오바마 당선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 당선인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도약(jump-start)시켜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빈 전략가는 다음 과제로 차입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 구제를 꼽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 증진과 건강보험 개혁을 들었다. 그는 경기부양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00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계열 경제분석기관인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없으면 내년 한해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이 지난달 1,750억달러 규모의 경기처방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며 “3,000억달러의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간 경제분석기관인 글로브 인사이트의 브라이언 베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정규모로 2,000억달러를 제시했다.

◇ 증세 공약, 지금은 무리다-프라빈 전략가는 오바마 당선인의 증세 공약에 대해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증세는 무리일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마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증세를 연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침체가 한창인 상황에서 증세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증세는 적어도 오는 2009년을 넘긴 이후에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 “증세 공약보다는 재정 확대책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3,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을 공약했는데 해마다 4,300억달러 투입은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실탄 규모 2,000억~3,000억弗 돼야

시장상황 감안 부유층 증세 당장은 무리

경기회복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

고 말했다.

◇ 금리도 더 내리지만 경기회복은 더뎌-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경기회생에 나서도 경기회복 시기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베룬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음달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라며 “제2차 경기부양대책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1-4분기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항공모함은 금방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경기회복이 늦어져 오바마 행정부의 말월은 오래가지 못하고 미국인들은 이내 실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회복의 관건인 주택가격은 2010년까지 10%가량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프라빈 전략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FRB가 금리를 제로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a@se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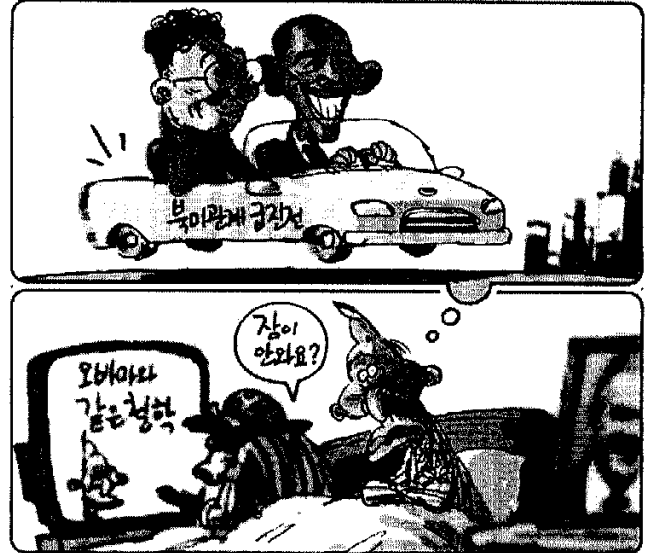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핀

오바마 바이러스



장봉군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오바마 '2차 경기부양책' 서두른다

정권인수팀 공식출범... 비서실장에 이매뉴얼 의원
의회 지도부와 구제금융 논의... “1000억달러 규모”

오바마 '중도의 깃발' 드나

당선연설서 '통합의 정치' 강조... 진보진영 일부 “진보 어젠다 밀어붙여야”

오바마, 정권 인수팀 공식 출범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 유력
차기 재무장관 이르면 오늘 발표
가이스너-서머스-볼커 등 거론

코스피 7.5% 폭락

‘오바마 랠리’ 끝... 환율 65원 급등 1331원

영국 금리 1.5%p 인하

경기침체 우려 코스피 89p 급락

李대통령, 오바마와 오늘 아침 통화

14일엔 워싱턴서 오바마 참모들과 FTA등 간담회

IMF “美 내년 성장률 -0.7% 전망”

세계 성장률 2.2% 그칠 듯... 코스피 1100 붕괴

“중부세 일부 위헌 결정 날 것 같다”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파문

민주당, 진상조사 요구

법정관리 신청 기업 급증

10월까지 73곳... 작년보다 3배 늘어